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한국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발전과제
국제 비교를 통한 배상책임보험 시장 조망 및 시사점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 결과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2005년 6월말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현황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 해외보험 동향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중국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한국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발전과제	1
국제 비교를 통한 배상책임보험 시장 조망 및 시사점	11
보험산업 개관	22
보험산업 환경	25
1. 해외 경제	25
2. 국내 경제	27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29
보험지표 동향	31
1. 보험산업 총괄	31
2. 생명보험	33
3. 손해보험	44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55
1.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	55
2.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	58
3.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 결과	61
4.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64
5. 2005년 6월말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현황	66
6.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69
해외보험 동향	72
1. 미국 동향	72
2. EU 동향	83
3. 일본 동향	87
4. 중국 동향	93
통계표	95

테 마 진 단

◆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발전과제

류건식 재무연구팀장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퇴직연금관련법의 확정 및 특징

퇴직연금의 관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법률 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각각 확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연금전환의 인센티브 및 근로자 수급권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요구됨.

가. 퇴직연금관련법의 확정

- 기존 퇴직금제도가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연봉제확산, 중간정산제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도산시 근로자 수급권보장에 미흡(퇴직금 장부상 적립 등)하다는 점을 고려, 근로자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 예정임.
- 기존 퇴직금제도는 퇴직금부채의 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5인이하 사업장의 미적용으로 근로자 절반이상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와 같은 배경하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등을 노사간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한 임의형 퇴직연금제도라는 점, 그리고 2008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며 퇴직보험(퇴직신탁)폐지를 5년 유예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님.
- 또한 근로자들의 잦은 직장이동,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제도도 함께 도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전환의 인센티브 불충분, 실질적 근로자 수급권보장장치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요구됨.

나. 퇴직연금관련법의 특징

- 우선 제도설계 측면에서 급여제도의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DB설정 요건에서는 퇴직금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표 1> 제도설계 및 운영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용

구분	세부내용	규정
제도 설계 관련 규정	급여제도 설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법제 4조3항
	퇴직금우선변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절권, 저당권보다 우선변제 법제11조2항
	DB형 설정요건	일시금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법제12조4항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지급 법제12조6항 가호
	DC형 설정요건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 납부 법제13조2항
		매반기1회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가지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법제13조4항
	운용상품제공	DC형과 IRA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시행령 제9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제10조
	업무의 위탁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분리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형태로 위탁 -재무건전성,인적·물적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 위탁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DB형에 한함) 법제13조 제5호
	중도인출허용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특히 DC형의 경우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운용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원리금보장상품 1개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형태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임.

- 위탁계약의 조건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임.

□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형에 한함)의 경우는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수급권 및 건전성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용

구분		세부내용	규정
수급권 및 건전성 관련 규정	퇴직연금사업자 건전성 요건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이상일 것 - 은행(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이상)	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근로자의 수급권보장	60%이상 적립(책임준비금액과 최저적립기준액중 더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	법제12조
	책무와 감독	사용자에 책무부과하고 위반시 제재 -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업무계약체결금지 - 운영·자산관리업무자료 고의로 누락·허위작성하여 제공금지 퇴직연금사업자에 책무부과하고 위반시 제재	법제19조
		- 법령 및 계약준수의무, 성실의무 - 계약체결회피 또는 강요금지의무 - 손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강요금지의무 - 손실부담을 약속하거나 특별한 이익제공약속금지 등	법제20조
		정부의 책무 - 활성화방안 강구, 연구사업지원, 지급보장장치 강구	법제23조
	투자한도설정	DC 및 IRA에 있어서 위험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운용 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 - 총투자한도를 운용방법별로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금감위가 정하되(노동부와 사전협의), 퇴직연금형태별로 기준 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호

- 즉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업무의 재위탁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는 전문인력, 전산설비,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도록 규정함.
- 이와 더불어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보험사의 경우에만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이 적립금의 60%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함.
- 특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신의성실원칙 및 충실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책임의무 규정을 두어 수탁자책임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험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총투자한도를 운용방법 별로 40%를 초과할 수 없음)를 설정함으로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되(노동부와 사전협의), 퇴직연금형태 별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한국형 퇴직연금제도는 1년미만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시키고 있으며,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 확보가 어렵고, 퇴직연금세제혜택이 300만원에 지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유인효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됨.

□ 적용범위

- 현행 퇴직연금관련법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시킴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현행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금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들을 적용제외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음.
- o 따라서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배구조 측면

- o 현행과 같은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에서는 금융회사가 모든 절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사용자와의 금전계약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고 근로자와의 이익의 상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o 이에 따라 ①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감독 중시 ② 사용자와 금융기관간 불공정한 계약(예: 금전계약)방지 ③ 근로자와 이익상충이 없도록 사전에 정형화된 규약 설정 등에 감독당국의 감독초점이 맞추어질 필요성이 있음.
- o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외에 업종·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수급권보호 측면

- o 현행 퇴직연금 관련법에서는 책임준비금과 최저적립기준액의 검증, 퇴직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 등과 같은 일련의 수급권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책임준비금과 최저적립기준액의 60% 이상을 적립하면 되므로 수급권의 완전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o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립금수준의 상향조정과 채납시의 징수방법, 미국식의 연금지급보증공사 또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강구가 요구됨.

□ 수탁자책임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수탁자책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법적·제도적으로 수탁자책임 위반에 따른 소송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수탁자책임범위의 명확화, 면책범위의 설정과 더불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수탁자유형별 제재수단 및 조치의 차별화가 바람직함.

□ 연금지급

- 근로자의 퇴직시 아무런 제한없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등에도 중도인출이 허용됨에 따라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에 한계가 노출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일정한 연령(예를 들어 55세)까지 지급을 이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퇴직시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완과 세제 정책에 의한 일정연령 이후의 연금수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세제

- 최근 발표한 퇴직연금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세금공제혜택이 개인연금가입자에게 제공하였던 240만원에 퇴직연금가입분까지 합쳐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전환의 유인효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퇴직연금세제개편안 : ①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축소(퇴직급여추계액 중 40%에서 30%로 축소), ② 퇴직급여불입액중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③ 퇴직연금수령시 소득공제한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④ 기존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50%에서 45%로 하향조정
- 퇴직연금전환차원에서 사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함.

3.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제

한국형 퇴직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① 퇴직연금전환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② 근로자 수급권보호장치의 체계화, ③ 상시적인 퇴직연금 리스크감독체계 구축, ④ 하이브리드형과 같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⑤ 공사연금간의 상호연계성 도모 등이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가. 퇴직연금전환을 위한 제도장치마련

- 퇴직연금전환을 위해 중간정산제도 또는 중도인출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함과 더불어 퇴직연금수령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일시금 수령요건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더불어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퇴직금의 사외적립수준을 제고함과 더불어 실질적 퇴직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퇴직급여불입액 중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기금의 외부적립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므로 기업 각출분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제도전환을 위한 유일한 개입수단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차별화하는 세제밖에 없어서 적절한 세제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확산이 지연될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음.
- 대다수 외국제도에서는 사내적립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사내에 적립할 경우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금의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외적립의 경우 퇴직금제도의 발달을 위해 사내적립과의 세제상의 차별을 도입할 필요성이 존재함.

-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금관련 세제는 혜택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차별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제도전환의 가장 강력한 유인인 세제정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나. 근로자 수급권 보호장치의 체계화

-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100분의 60이상(책임준비금과 최저적립기준액의 60%이상)으로 하되, 적립수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토록 하고, 회계감사시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퇴직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 등과 같은 수급권보호장치만으로는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연금급여공사(PBGC) 등과 같은 별도의 수급권보증기구가 설립·운용이 요구됨.
- 다만, 수급권보증기구의 설립·운용은 어느 면에서 기업의 추가부담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설립시기 및 방법 등은 기업의 부담능력과 더불어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다. 퇴직연금 리스크감독체계의 정비

- 퇴직연금운용과 관련된 리스크의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기관 측면에서 어떻게 연금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상시적 리스크감독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퇴직연금리스크감독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준용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리스크감독규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각각 구분하여 각 제도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처럼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 하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감독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사용자와 금융기관간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됨.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당경쟁을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수익구조 가이드라인 제시(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적정수수료체계설정 유도 등)가 리스크감독정책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자산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손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의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라.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추진

-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됨으로써 퇴직급여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고용주와 피용자가 함께 기금을 적립하는 개인연금제도, 기업의 영업이윤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해 주는 이윤분배제도, 종업원 주주제도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다양한 확정각출형 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를 줌.
-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이 다양해지는 경우 기업측에서는 기업의 특성 및 환경에 맞게 제도를 설계,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근로자측에서도 그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노사 양측에 플러스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음.

마. 공사연금간의 상호 연계성 도모

- 공적연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지원 확대는 재정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측면에서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문제를 해결하면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공적연금제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다층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 경우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현행 공적연금의 보험료 수준은 적정인가, 그리고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정인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공적연금제와 사적연금제간의 역할분담과 연계 방안 등이 노사정의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 비교를 통한 배상책임보험 시장 조망 및 시사점

조혜원 선임연구원

1. 머리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배상책임보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을 조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임차하거나 보호,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물 이외의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의 피용인 이외의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임.
- 동 보험은 산업의 발전으로 각종 사고발생률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대응하게 하는 대책이며,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배상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위수단이며 피해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 보험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손해보험 산업, 특히 일반손해보험이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위치를 살펴보고,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고찰해보고자 함.
- 사용 통계는 OECD 보험통계¹⁾를 사용하였으며, 단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 시점에 따른 통계 부재로 국내에서 집적한 배상책임보험 통계²⁾를 사용함.
- 비교 대상 국가들로는 세계 10대 손해보험 국가 중에서 관련 통계가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국을 대상으로 함.

1) OECD, *OECD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2)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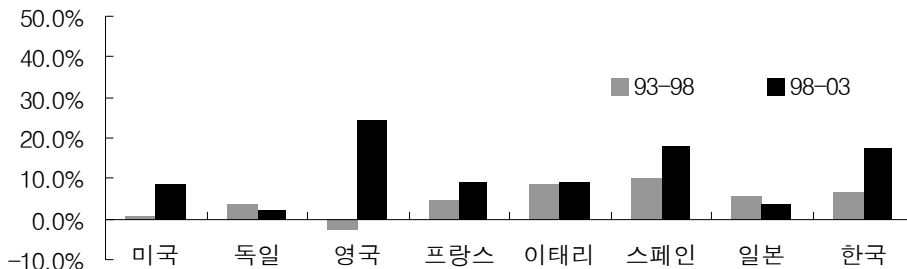
2. 배상책임보험의 국제 비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이 경상GDP 성장보다 빠르게 나타나 배상책임보험 침투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나,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규모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①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성장률

- 전 세계적으로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1990년대 후반 이후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5년간 두드러졌으며, GDP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1993~1998년 기간과 1998~2003년 기간 수입보험료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후자 기간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은 IMF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해 주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보험료 성장과 더불어 배상책임보험 발생손해액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동 보험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배상책임보험 연평균 성장률 비교



자료 : OECD, OECD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표 1>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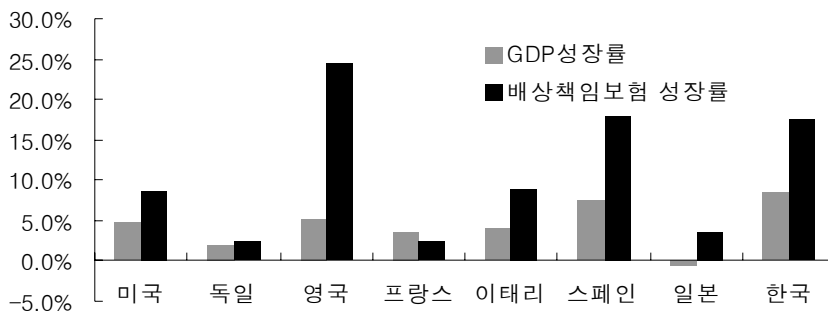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기간	1955-2003	1975-2002	1983-2002	1971-2002	1971-2002	1970-2002	1970-2002
배상책임보험 손해	10.6%	11.3%	8.8%	7.4%	9.4%	15.9%	13.8%

자료 : Swiss Re, "The economics of liability loss-insurance a moving target", *Sigma* No/2004, 2004.

② 배상책임보험 침투도

-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성장이 경상 GDP 성장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998~2003년간 평균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성장률이 경상 GDP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 GDP 성장률은 연평균 8.4%, 배상책임보험 성장률은 연평균 17.5%임.

<그림 2> 국가별 경상GDP 성장률 및 배상책임보험 성장률(1998~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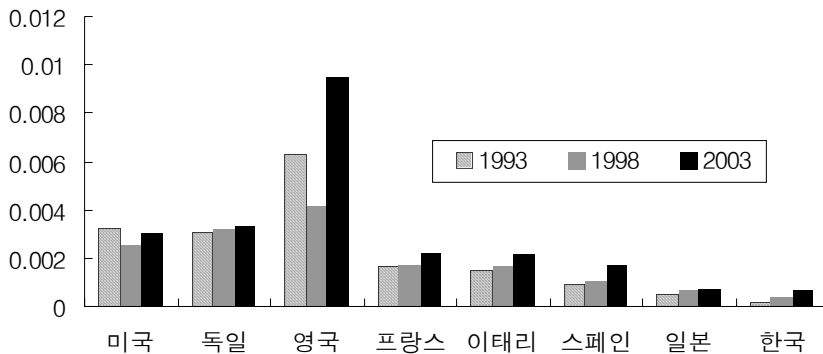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 배상책임보험료 성장이 GDP 성장을 상회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이 전체 GDP에서 점유하는 비중(배상책임보험 침투도)도 미국, 영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배상책임보험은 1998~2003년 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수준은 2003년 0.00067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그림 3> 국가별 GDP 대비 배상책임보험 비중



자료 : OECD, *OECD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3.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이 높을수록 배상책임보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Swiss Re에 따르면, 1960~2002년간 미국 일반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변수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인상(medical inflation) 및 총의료비지출액(total health expenditures)이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³⁾.

- 이하에서는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침투도와 1인당 GDP 및 GDP 대비 의료비지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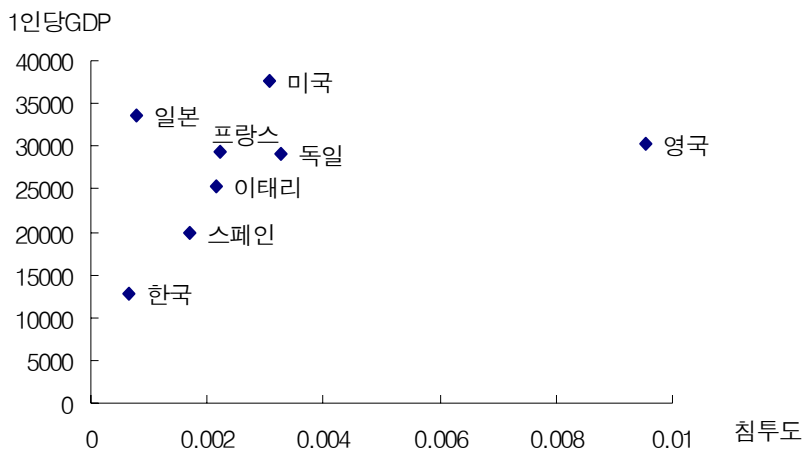
- 3) 미국 배상책임 손해와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의료비지출액 성장률이 상관계수 0.24를 나타내었으며, 거시경제적 변수들은 배상책임보험 지급보험금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Swiss Re, "The economics of liability losses-insurance a moving target", *Sigma* No6/2004, 2004.

모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시장 특징과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국제적 트렌드 등을 고찰하고자 함.

① 1인당 GDP와 배상책임보험 침투도

- 1인당 GDP와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1인당 GDP가 성장할수록 GDP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배상책임보험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영국과 1인당 GDP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 보험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는 국민소득 규모가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기업성 보험료 인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급성장하여 가장 높은 침투도를 나타내었고, 일본은 최근들어 동 보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낮은 수준임.
- 따라서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볼 때,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향후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음.

<그림 4> 국가별 1인당 GDP 및 배상책임보험 침투도



자료 : OECD, OECD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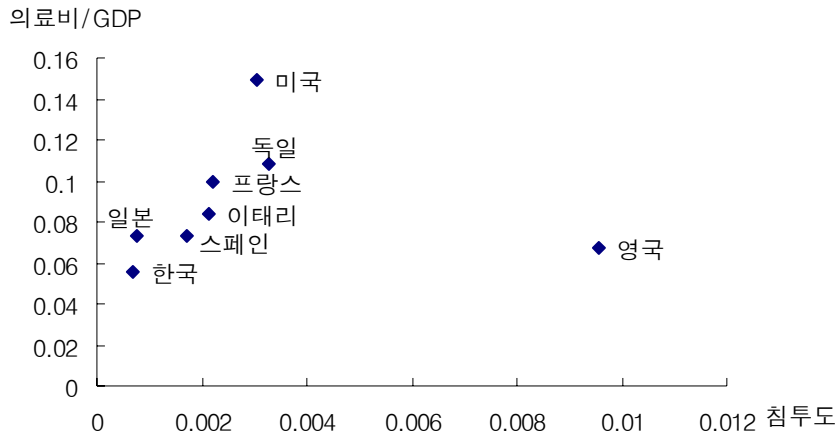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과 배상책임보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②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과 배상책임보험 침투도

-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과 배상책임보험 침투도와의 관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GDP에서 의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배상책임보험 침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인만큼, 의료비 지출액이 동 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미국과 같이 의료 관련 배상책임보험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동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설명한 Swiss Re의 분석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의 신체상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외에도 의료과오배상책임보험(Medical malpractice)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액과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2003년 미국의 의료과오배상책임보험은 전체 배상책임보험에서 약 13.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8~2003년간 평균 10.9%의 성장률을 보임⁴⁾.
-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에는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의료비지출액이 배상책임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4) Swiss Re, "The economics of liability losses-insurance a moving target", *Sigma* No6/2004, 2004., p8.

<그림 5> 국가별 의료비지출액/GDP 및 배상책임보험 침투도



자료 : OECD, OECD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본 위치나 최근의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성장단계에 있으며, 1인당 GDP 및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시장임.

□ 국내 배상책임보험은 FY2004 8.4%의 보험료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최근 일반손해보험 산업의 저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손해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FY2001 1.9%에서 FY2004 2.3%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종보험의 약 25%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5) 국내에서 집적한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성장률로 앞서 국제 비교에서 사용한 OECD 성장률과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연도.

<표 2> 국내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이(FY2001~FY2004)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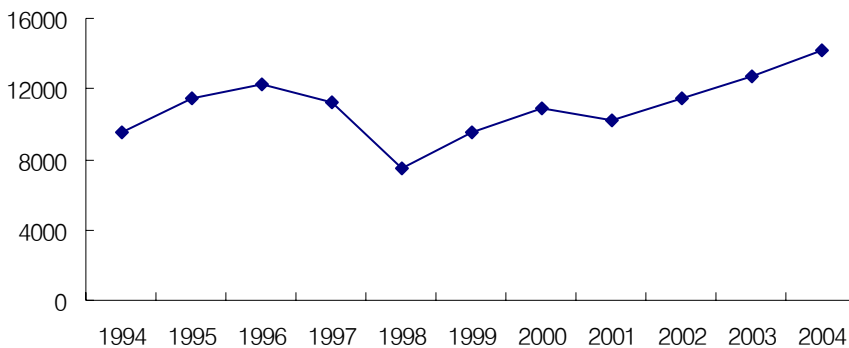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배상책임보험(A)	3,602	4,468	4,835	5,243
특종보험(B)	14,430	17,484	18,741	20,369
손해보험 전체(C)	186,887	205,944	213,743	232,173
A/B	25.0%	25.6%	25.8%	25.7%
A/C	1.9%	2.2%	2.3%	2.3%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연도.

-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본 위치나 최근의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초기 성장단계에 있으며, 경제성장이나 의료비지출액에 있어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1인당 GDP와 배상책임보험 침투도의 국제 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나, 국민소득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시장 추세와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성장 지속에 따라 동 시장의 성장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규모는 IMF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GDP에서 차지하는 배상책임보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 국내 1인당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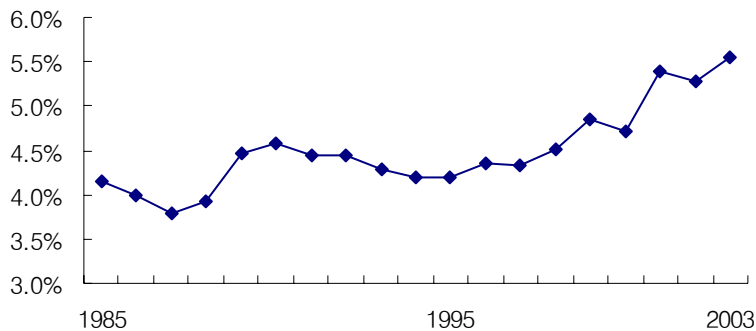
(단위 : 달러)



자료 : 한국은행

- 국내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 비율은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보험침투도와 국제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은 1995년 4.2%에서 2003년 5.5%로 꾸준히 증가함.

<그림 7>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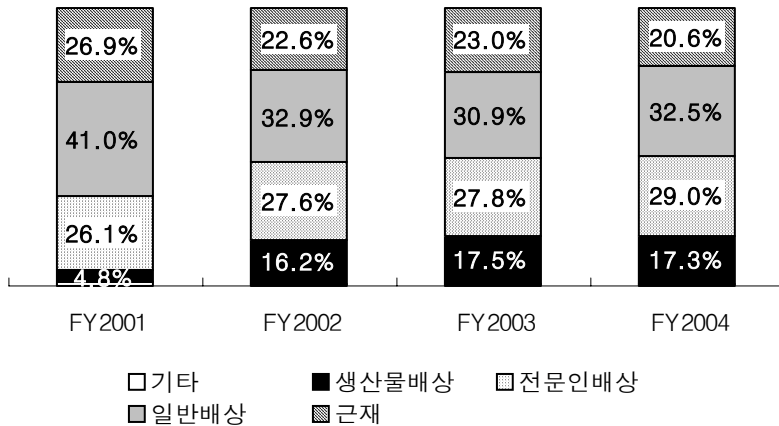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Health Data 2005』, 2005.6.

- 배상책임보험에서 “대인 배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크고⁶⁾, 최근 신체 상해 관련 종목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할 때, 향후 의료비지출액과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금 지급 측면 면에서 “대인(신체상해)”이 “대물(재물손해)”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최근의 국내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성장을 살펴보면, 근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등 신체상해 관련 종목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 의료비지출액 증가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성장이 예상됨.
- 근재보험의 경우, 종목별 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나타냄.

6)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04.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비중이 FY2001 26.1%에서 FY2004 29.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FY2002 도입 이후 꾸준히 판매되고 있음.

<그림 8>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화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연도.

4. 시사점

국내 배상책임보험은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일반 손해보험과의 상이한 특성으로 적합한 요율체계 구축, 적정 준비금 적립, 전문화된 언더라이팅 등을 통한 사전적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상의 부담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배상책임보험은 국제적으로도 성장 추세에 있는 시장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최근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상책임보험은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낮은 보험침투도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실정이나, 이는 반대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및 의료비지출액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대인배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크고 신체상해 관련 종목의 성장 추세는 배상책임보험시장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
- 배상책임보험은 향후 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클레임 처리의 장기성, 즉 long-tail 종목으로 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경영상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적 대비책이 필요함.
- 첫째, 현재 배상책임보험의 많은 종목에서 재보험자 구득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국내 실정에 맞는 적합한 요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확한 가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국내 보험환경이 반영된 요율을 사용함으로써, 확대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회사의 정확한 손익관리도 가능해 질 것임.
- 둘째, 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발생시점이 아닌 배상책임손해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책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각종 특성에 맞는 적절한 준비금 적립이 요구됨.
 - 소송환경변화 등에 따라 현재 예기치 못한 대형 클레임 발생에 대비하여 적절한 준비금 적립 및 위험관리가 필요함.
- 셋째, 법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문화된 언더라이팅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증가하는 클레임으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보험산업 개관

장기간 진행된 금리 하락세의 여파로 채권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채권 의존도가 높은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운용자산수익률이 생보 6.5%, 손보 5.9%로 크게 하락함.

□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운용자산수익률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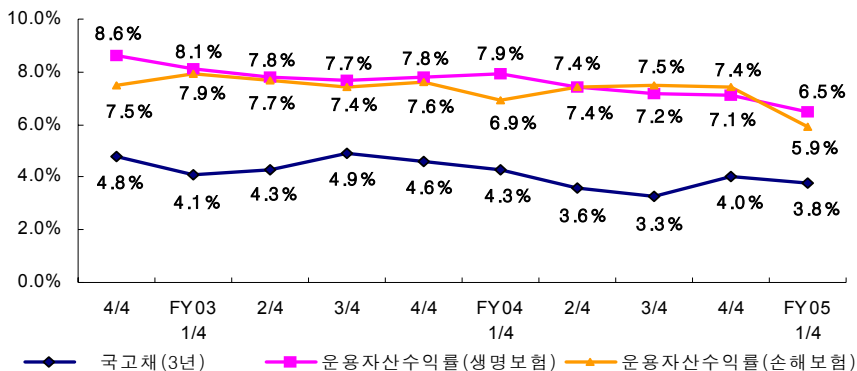
○ 국고채(3년) 수익률은 FY2003 3/4분기 ~ FY2004 3/4분기 사이에 1.6%p나 하락하였으며 이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9월 중순이후에는 국고채 수익률이 4.5%를 상회하고 있어 반등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생명보험 운용자산 수익률은 FY2003 2/4분기 7%대에 진입한 이후 하향 추세를 지속하여 FY2005 1/4분기에는 6%대에 진입함.

○ 손해보험의 경우 금리 하락기였던 FY2004에 채권가격의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7% 중반의 수익률을 유지했으나 FY2005 1/4분기에는 5.9%로 큰 폭 하락함.

<그림 1>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FY2005 1/4분기 보험회사의 자산 구성비를 보면 크게 장기 채권의 보유 확대와 대출채권의 보유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주로 장기운용증권인 매도가능증권에서 채권의 비중이 37.6%에서 40.8%로 확대된 반면, 대출 채권의 비중은 반대로 25.4%에서 22.7%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경우 채권은 단기매매채권 및 매도가능증권 모두에서 각각 2.4%p, 2.9%p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출채권의 비중은 소폭 감소함.
 - 손해보험의 자산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것은 단기매매증권의 수익증권으로 4.8%에서 0.1%로 사실상 그 비중이 소진됨.
 -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채권의 보유 비중을 확대하여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보험회사 주요 자산 구성비 비교(일반계정자산 대비 비중)

(단위 : %)

항 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대출채권	기타자산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생명보험	FY04 1/4	0.2	1.8	3.8	37.6	25.4	31.2
	FY05 1/4	0.2	1.9	3.9	40.8	22.7	30.5
손해보험	FY04 1/4	0.7	9.2	5.6	30.4	18.5	35.6
	FY05 1/4	0.6	11.6	5.7	33.3	18.0	30.8

주 : 1) 기타 부문에는 부동산, 만기보유증권, 비운용자산 등이 포함.
 2)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관련 p41, p52 표 참조

- 운용자산수익률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주식수익률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유비중이 높은 채권 부문의 수익률 하락으로 악화됨.
- 생명/손해보험 모두 단기매매채권의 주식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일반계정자산에서의 비중이 각각 0.2%, 0.6%에 불과해 기여도가 낮았음.
 - 매도가능증권에서의 장기 운용 주식의 경우 보유 비중이 크지 않고 수익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 전체 운용자산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나타남.

- 채권 수익률의 경우 생명/손해보험 모두에서 단기매매 및 매도가능 증권을 가리지 않고 현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하락세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에 더해 최근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채권가격하락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대출 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채권 부문과 대조를 나타냄.

<표 2> 보험회사 주요 운용자산 수익률 비교

(단위 : %)

항 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대출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생명보험	FY04 1/4	9.8	8.7	2.4	7.8	9.8
	FY05 1/4	27.1	6.1	2.0	6.2	9.3
손해보험	FY04 1/4	21.2	7.4	10.0	6.8	8.2
	FY05 1/4	44.7	5.7	5.2	5.6	7.9

주 :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관련 p41, p52 표 참조

-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의 하락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대출채권 등으로 자산운용처를 다변화하고 자산운용비용의 축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최근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FY2005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채권 가격 하락으로 당분간 저조한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자산 운용을 유동화 증권, 대출 등 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확대하고 최근 금리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연하게 채권 매입 시점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5년 상반기에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성장세의 지속 및 이에 따른 금리인상을 실시하였으며, 중국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일본경제는 회복조짐을 나타냈으며, 이에 반해 유로지역은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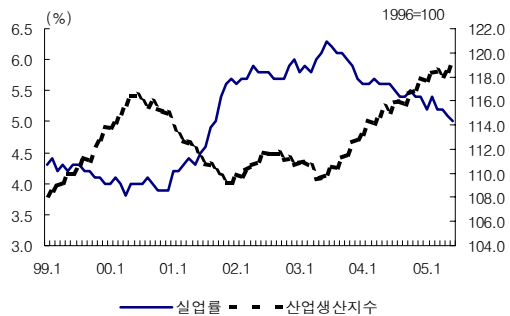
- 2/4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전년동기대비 3.4%를 기록하여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중국도 예상보다 높은 9.5%의 고성장세를 나타내었고, 일본도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유로지역은 0.3%에 그쳐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둔화됨.
- 미국의 경우 2005년 6월중 주택경기 호조지속 및 산업생산이 호전되었고 7월중 소매판매가 대폭 증가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 비농업부분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45개월래 최저수준인 5.0%를 유지함.
 - 다만, 카트리나 및 연이은 대형자연재해 발발로 인해 원유생산 차질과 이에 따른 유가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함.
- 중국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도 여전히 강한 성장을 유지하였고, 고정자산투자 역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예상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주요지역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1/4	2/4
미 국	2.2	3.0	4.3	3.7	3.4
일 본	-0.3	1.4	2.7	1.2	1.1
중 국	8.0	9.1	9.0	9.4	9.5
EURO	0.5	2.0	2.0	1.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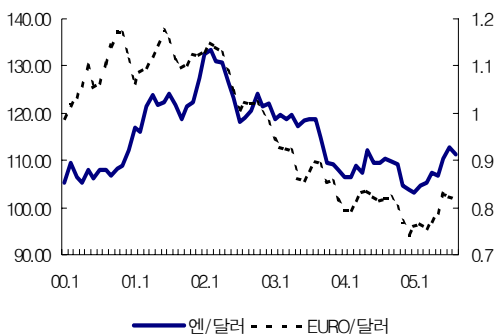
주 :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로 환산
 자료 : 국제금융센터, EUROSTAT,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그림 1> 미국의 생산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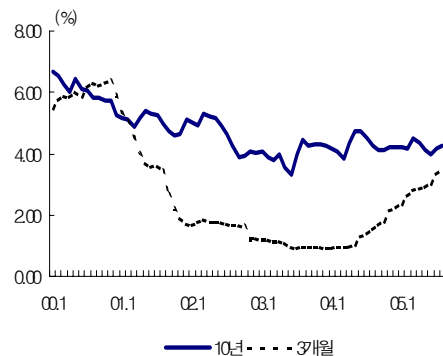
- 일본의 경우 2005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1%로써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여 경제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6월중 실업률도 7년래 최저 수준인 4.2%로 감소함.
- 유로지역의 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의 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6월중 실업률이 평균 8.7%(독일 9.5%, 프랑스 9.7%)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美 장기국채금리는 2005년 6월까지 하락, 이후 7월에는 상승세를 시현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단기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었으며, 달러화는 상대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강세와 약세를 거듭함.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6월 들어 고유가 등에 따른 경기불안으로 3.92%로 하락하였으나 7월 들어 경제지표의 호전 등에 힘입어 4.28%로 상승전환됨.
- 이에 반해 3개월 만기 단기금리는 정책금리의 추가인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됨.
- 엔/달러는 2005년 들어 다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며 8월에는 111.38로 상승하였고, Euro/달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보이며 8월에는 0.82(달러/Euro 1.22)로 상승함.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 기간 평균
자료 : FRB St. Luise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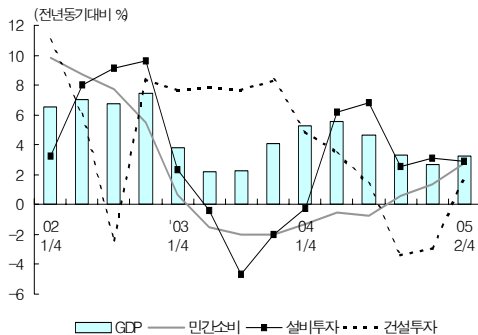
주 : 기간 평균
자료 : FRB St. Luise

2. 국내 경제

2005년 상반기 이후 8월까지 주요 내수변수들의 완만한 회복으로 2/4분기에는 1/4분기대비 GDP 성장률이 소폭 회복되었으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소비자물가도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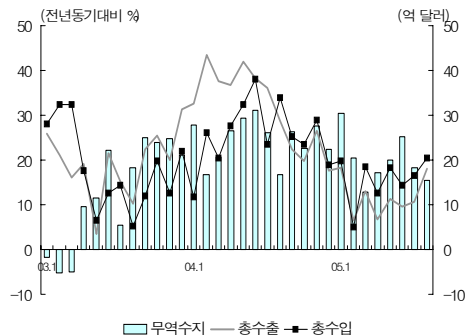
- 2005년 2/4분기에 기계류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3%로 소폭 회복세를 나타내었고, 2/4분기의 내구재 및 서비스지출의 증가로 민간소비가 확대됨.
-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등 기계류의 투자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 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투자가 부진하여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함.
- 주거용 건물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토목건설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여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함.
- 민간소비는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전분기대비 1.4% 증가)하였으나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심리 등을 나타내는 소비자자기대지수는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향후 소비의 지속 회복 여부는 불투명함.
- 2005년 상반기 및 이후 8월까지 수출은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8월에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한 235.2억불을 기록했으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한 218.5억불을 기록함.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5> 대외 거래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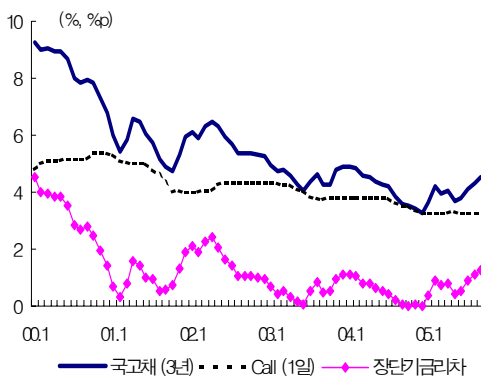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보험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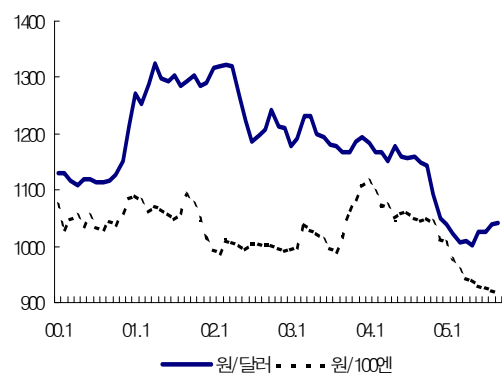
- 수출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 등의 비IT제품은 전년동기대비 22.4%의 호조세를 보인 반면, IT제품의 수출은 1.9%로 둔화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과 EU지역의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미수출은 약세임.
- 수입은 원유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45.1%가 증가하여 원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을 주도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중동과 중국으로부터 원유와 전자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10월 11일부터 콜금리 목표를 연 3.25%에서 연 3.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6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원/엔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함.
- 금통위는 실물경제의 개선은 미흡하나 높은 수출 신장세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등을 근거로 기존의 콜금리 목표를 연 3.25%에서 연 3.5%로 확대함.
-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콜금리 인상전망과 주가지수의 지속적인 최고치 경신으로 인해 장기금리(국고채 3년)가 4%대 중반으로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소 확대됨.
- 2/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1,01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이 엔/달러 환율의 상승폭에 미치지 못한 데 기인하여 원/엔 환율은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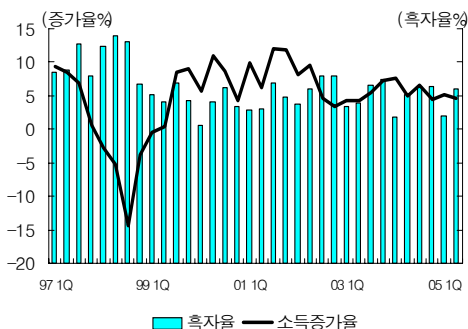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은 미미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2005년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가 침체되면서 경기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증권 및 보험 등 모든 금융권으로 자금유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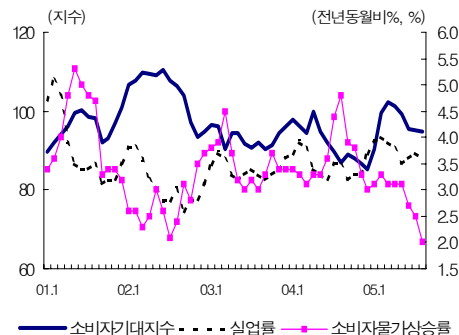
- 2005년 상반기에는 소비자심리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듯 보였으나 소비자대지수는 6월(95.4), 7월(95.2), 8월(94.8)에 지속적으로 100이하를 나타내어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실업률도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민간소비는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전분기대비 1.4% 증가)하였으나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심리 등을 나타내는 소비자대지수는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향후 경기회복이 불투명함.
-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2005년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는 데 그쳐 2004년 4/4분기의 6.5%에 비해 두 분기 연속으로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3.5%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을 유지함.
- 2/4분기에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단 1.6%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0.1%가 감소함.

<그림 8> 소득,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1-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보험산업 환경

- 2005년 2/4분기(FY2005 1/4분기)중 저금리기조 하에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의 증가로 인해 은행권으로 자금유입이 증가하였고,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투신과 증권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됨.
 - 은행권의 경우 신탁계정의 수신이 감소한 반면 고금리 특판예금의 경쟁적 취급으로 인해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2/4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수신이 크게 증가함.
 - 증권과 투신권의 경우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적립식 펀드와 같은 주식형 상품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금유입이 증가함.
- 보험권에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변액상품의 견인에 힘입어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수신이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수신이 증가하였음.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1/4	2/4	3/4	4/4	1/4	2/4
보 험	48,649	64,808	71,449	94,002	55,643	71,225
생명보험	37,604	48,549	54,862	75,500	42,277	53,602
손해보험	11,045	16,259	16,587	18,502	13,366	17,623
은 행	-67,109	37,239	-1,871	-28,410	-20,297	176,673
일반계정	-11,707	40,699	19,734	-13,394	-30,494	196,056
신탁계정	-55,402	-3,460	-21,605	-15,016	10,197	-19,383
증 권	-5,145	5,049	-1,427	-11,172	16,898	11,948
투 신	170,435	-14,380	136,801	148,323	52,889	46,962
총 금	-20,816	7,090	940	-18,256	19,416	2,048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5 1/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보험이 증시활황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10%를 상회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함.

- FY2005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최근의 상승세가 가속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12.0% 성장
- 생명보험은 변액보험이 성장을 주도하고 또한 퇴직보험도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3.0%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함.
 - 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과 건강보험판매의 증가로 장기손해보험이 성장을 주도하고 일반손해보험의 회복이 뒤를 이으면서 9.8%의 견조한 성장을 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3
	3.9	2.7	6.3	10.4	0.5	11.4	6.7	13.0
손해보험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57,171	232,173	61,236
	5.6	3.8	9.0	8.1	9.3	8.1	8.6	9.8
합 계	173,136	717,668	176,933	183,729	217,954	191,062	769,679	198,169
	4.4	3.0	7.1	9.7	2.9	10.4	7.2	12.0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5 1/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2.6%, 손해보험이 3.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2.8% 증가

- FY2005 1/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2.8% 증가한 262조 1,234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217조 71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입보험료의 괄목할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의 감소로 2.6%의 증가에 그침.
- 손해보험 총자산은 450조 522억원으로 보험영업이익의 증가와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따른 준비금 증가로 전분기 대비 3.6% 증가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873,615	1,873,615	1,915,209	1,993,838	2,099,079	2,116,098	2,116,098	2,170,712
	2.3	14.1	2.2	4.1	5.3	0.8	12.9	2.6
손해보험	388,229	388,229	395,180	409,196	426,766	434,720	434,720	450,522
	9.8	9.8	1.8	3.5	4.3	1.9	15.0	3.6
합계	2,261,844	2,261,844	2,310,389	2,403,034	2,525,845	2,550,818	2,550,818	2,621,234
	2.3	13.3	2.1	4.0	5.1	1.0	12.8	2.8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5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0% 성장한 13조 6,933억 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함.
 - 개인보험은 특히 변액보험이 334.3% 증가하고 생사혼합보험의 감소가 -8.6%로 완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함.
 - 단체보험의 경우도 지난해 성장세로 반전된 퇴직보험이 80.6%나 성장하고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세도 완화되면서 39.5%의 건조한 성장을 함.
- FY200 1/4분기 총자산 규모는 217조 71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6% 증가함.
 - 수입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의 감소에 따른 총수지의 악화, 그리고 준비금전입액도 감소함에 따라 자산증가는 소폭에 그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 자 산	1,873,615	1,873,615	1,915,209	1,993,838	2,099,079	2,116,098	2,116,098	2,170,712
	2.3	14.1	2.2	4.1	5.3	0.8	12.9	2.6
수입보험료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3
	3.9	2.7	6.3	10.4	0.5	11.4	6.7	13.0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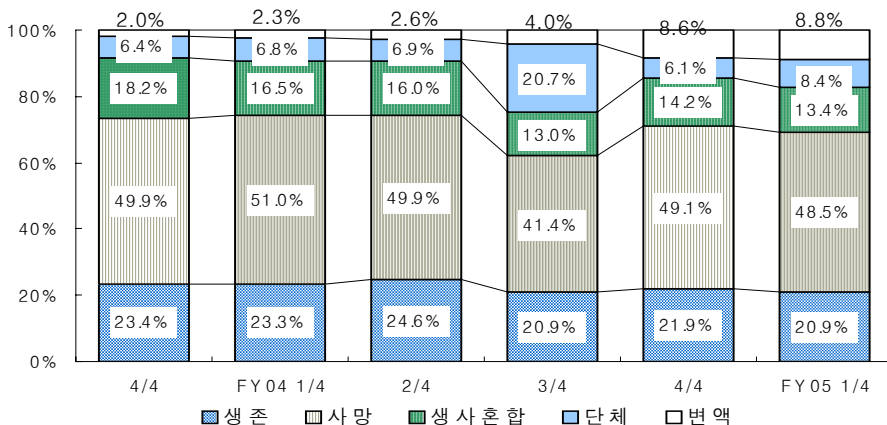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5 1/4분기 종목구성 비중은 전통 종목인 사망보험 48.5%, 생존보험 20.9%, 생사 혼합보험 13.4% 등으로 모두 축소된 반면 변액보험이 8.8%, 단체보험 8.4%로 비중이 확대됨.
- FY2005 1/4분기는 저금리가 지속된 반면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라 펀드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전통적 사망보험은 성장세 감소와 일부 변액화에 따라 구성비가 전년동기대비 2.5%p 감소했음.
 - 전통적 생존보험 또한 증가세의 둔화와 일부가 변액화된 수요로 전환되면서 생존보험 구성비는 2.4%p 감소함.
- 1/4분기 일반계정중 무배당보험구성비는 전년동기보다 3.9%p 증가한 85.6%였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3.4%p 증가한 44.2%로 무배당화와 금리리스크 전가가 지속됨.
 - 종목별로 질병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소폭 비중이 확대된 반면 종신보험, 상해보험, 장기건강보험은 성장률 둔화로 비중 변화가 없었음.
 - 반면 변액유니버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변액보험 중 51.8%를 차지했으며, 변액연금 34.5%, 변액종신 6.8%, 변액기타(대부분 변액CI) 6.8%를 차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5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12조 5,408억 원이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39.5% 증가한 1조 1,526억원이었음.
- 사망보험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6조 6,402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었으나 성장세는 감소를 보임.
 - 이는 종신보험의 성장둔화(2.7% 증가)와 함께 일부 수요의 변액화(변액종신 5.0% 증가)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한편 금번 분기부터 분리되어 보고된 변액CI보험은 825억원이 거수되어 변액종신과 유사한 실적을 나타냄.
- 전통적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2% 성장한 2조 8,600억원의 저조한 증가를 보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성장세가 약화됨.
 - 장기저축성상품의 성격이 강한 연금상품이 저금리 현상의 지속에 따라 23%p나 감소하여 2.3% 성장에 그치고, 개인연금도 지속적으로 감소(2.1%)함.
 - 반면, 변액연금은 주식시장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자금이 펀드에 몰림과 함께 167.6%의 급격한 성장을 하여 4,176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임.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한 1조 8,312억원의 실적을 보였으나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반면, 변액유니버설이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간접투자시장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6,267억 원을 거수함.
- 단체보험의 경우, FY2004 하반기에 성장세로 돌아선 이후 전년동기대비 39.5% 성장하여 성장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나 전체 보험료 성장에 기여함.
- 이는 퇴직보험이 80.6%로 큰 폭 증가하고 일반단체보험 또한 감소세가 완화(8.0%)되면서 일반단체보험의 바닥권인식의 확산과 법인대상 마케팅강화의 결과임.
- 상품별로는 건강보험이 전년동기대비 14.5%, 질병보험이 12.0%의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함.
- 상해보험(3.4%)이 소폭 성장한 것 외에 어린이보험(6.1%), 종신보험(2.7%) 등의 성장세가 감소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28,192	115,676	28,266	31,173	32,542	29,385	121,366	28,600
	성장률	16.0	26.5	18.3	17.4	-12.1	4.2	4.9	1.2
	구성비	23.4	23.0	23.3	24.6	20.9	21.9	22.6	20.9
사망	보험료	60,047	229,359	61,844	63,199	64,497	65,798	255,338	66,402
	성장률	9.7	8.3	11.2	12.9	11.8	9.6	11.3	7.4
	구성비	49.9	45.5	51.0	49.9	41.4	49.1	47.5	48.5
생사 혼합	보험료	21,916	94,505	20,028	20,264	20,279	19,076	79,646	18,312
	성장률	-18.7	-14.4	-14.6	-11.8	-22.4	-13.0	-15.7	-8.6
	구성비	18.2	18.8	16.5	16.0	13.0	14.2	14.8	13.4
변액 보험	보험료	2,356	7,621	2,785	3,293	6,256	11,456	23,789	12,093
	성장률	122.5	285.7	202.8	189.9	94.9	386.3	212.2	334.3
	구성비	2.0	1.5	2.3	2.6	4.0	8.6	4.4	8.8
개인 계	보험료	112,510	447,161	112,923	117,929	123,574	125,714	480,140	125,408
	성장률	5.1	7.6	8.7	10.6	-0.4	11.7	7.4	11.1
	구성비	93.6	88.7	93.2	93.1	79.4	93.9	89.3	91.6
단체	보험료	7,726	56,764	8,262	8,769	32,158	8,177	57,366	11,526
	성장률	-10.3	-24.5	-18.3	8.3	4.3	5.8	1.1	39.5
	구성비	6.4	11.3	6.8	6.9	20.7	6.1	10.7	8.4
합계	보험료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4
	성장률	3.9	2.7	6.3	10.4	0.5	11.3	6.7	13.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5 1/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기준)은 상위사의 비중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외국사를 필두로 중소형사의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이어짐.

- 상위 3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2%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전년대비 3.0%p 감소했으며, 전분기에 비해서도 0.6%p 감소하는 등 외형축소가 지속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들은 수입보험료가 각각 17.3%, 30.6%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15.0%와 18.0%로 확대됨.
 - 외국사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변액보험판매가 전년동기대비 90.3%(초회보험료 기준) 증가하는 등 신채널 및 신상품의 수요확대를 통해 성장함.
 - 국내 중소형사들은 수입보험료가 17.3%나 성장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성장을 주도한 변액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은 2.6%(초회보험료 기준)에 그쳐, 점유율이 소폭 증가함.

<표 6>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3개사	71.0	72.0	70.1	67.9	68.6	67.7	68.5	67.1
상위 9개사	89.0	89.4	88.4	86.3	86.5	86.0	86.8	85.3
외 국 사	14.9	13.6	15.5	17.4	15.3	17.7	16.5	18.0
국내중소형사	14.2	14.4	14.4	14.7	16.1	14.6	15.0	15.0
허판달지수	0.1993	0.2024	0.1935	0.1807	0.1847	0.1823	0.1848	0.1833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판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5년 6월말 알리안츠 등 10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5 1/4분기 당기순이익(잠정치)은 기타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5.6% 감소한 6,805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보험영업수익이 3.0% 증가하였으나 보험금과 신계약비상각비가 증가, 보험영업비용이 9.3% 증가하면서 수지차는 15.8% 감소하였음.
-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1%p 가까이 낮은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라 투자영업수익이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14.5% 감소한 2조 3,950억원을 기록함.
- 한편 준비금전입액은 일반계정의 부진에 따라 소폭 감소하고 기타수지도 흑자로 돌아 섬에 따라 총수지차가 개선됨.

<표 7>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477,213	118,151	242,546	368,818	492,808	121,728
	투자영업	118,707	33,879	63,184	101,735	129,822	29,363
	기타	4,487	868	1,451	2,015	5,548	14,412
	소계	600,407	152,898	307,181	472,568	628,178	165,502
총 비 용	보험영업	378,857	88,544	179,129	276,027	391,414	96,807
	투자영업	24,140	5,882	9,617	14,112	22,410	5,413
	기타비용	26,332	3,260	7,076	19,493	20,123	12,680
	소계	429,329	97,686	195,822	309,632	433,946	114,900
수 지 차	보험영업	98,356	29,607	63,417	92,791	101,395	24,921
	투자영업	94,567	27,997	53,567	87,623	107,412	23,950
	기타	-21,845	-2,392	-5,625	-17,478	-14,575	1,732
	소계	171,078	55,212	111,360	162,936	194,232	50,603
준비금전입		149,949	42,688	90,655	133,639	167,578	42,154
법인세		5,255	8	8	646	5,602	1,644
당기순이익		15,874	12,517	20,696	28,651	21,051	6,805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5 1/4분기 전체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전통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했으나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다소 개선돼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반면, 사업비율은 소폭 상승함.

○ 생존보험 중 연금보험 지급보험금이 24.8%나 증가하면서 전체 일반계정 개인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을 악화시켰으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334.3%)하고 단체보험의 퇴직보험지급률도 개선되면서 전체 보험금지급률이 소폭 개선됨.

- 상품별로 일반계정 건강보험 5.6%p, 종신보험 5.1%p, 어린이보험 2.6%p 씩 증가하여 각 보험금지급률이 23.6%, 19.6%, 36.1%로 나타남.

○ 사업비율은 생사혼합보험 사업비에서 162.0%, 일반 저축성 단체보험의 사업비에서 108.3%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p 소폭 증가함.

<표 8>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지급률	68.7	63.0	59.9	56.7	51.5	68.4	58.8	58.6
생 존	60.5	50.4	52.8	48.9	54.0	66.4	55.7	55.6
사 망	34.3	32.2	32.6	33.8	35.9	36.7	34.8	33.5
생사혼합	121.1	126.6	123.9	112.7	115.6	125.0	119.3	100.0
개 인 계	58.2	57.2	54.5	52.0	55.3	60.4	55.6	52.3
사 업 비 율	19.0	17.1	18.0	18.6	16.0	24.6	19.2	19.0
신 계 약 률	27.4	27.4	6.2	12.7	19.2	27.3	27.3	3.3
해 약 률	16.2	16.2	4.3	8.0	11.5	14.2	14.2	5.5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약률은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5 1/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0.6%p 감소한 6.5%를 기록하였으며, 저금리수준의 지속에 따라 채권운용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데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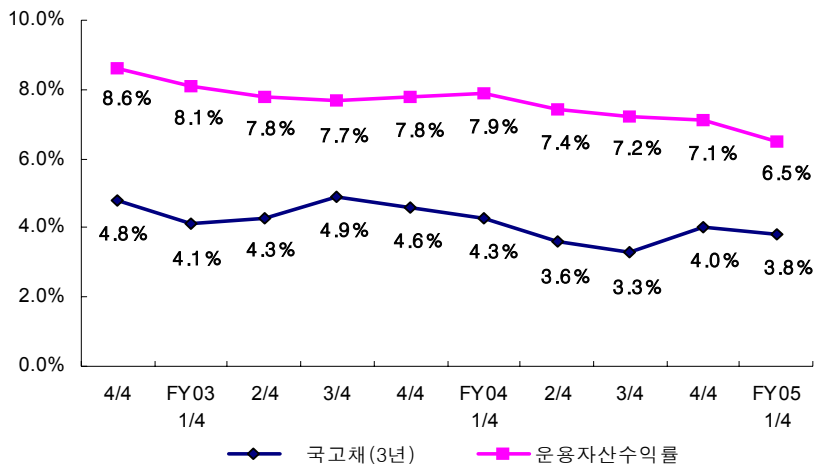
○ 매도가능증권의 채권비중이 3.2%p 증가하는 등 채권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매각익과 재투자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 투자수익률이 하락을 지속함.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년동기에 비해 0.1%p 소폭 감소하고 평균수익률도 0.4%p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기매매 채권운용수익률이 2.6%p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 반면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년동기에 비해 3.5%p 증가하고 평균수익률은 1.8%p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채권운용수익률이 1.6%p 하락한 데 기인함.

- 한편 만기보유채권 등은 비중이 0.4%p 감소했으나 수익률은 1.0%p 증가하였으며 주로 평가이익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5 1/4분기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전년동기대비 채권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3.3%p 증가한 반면 주식보유는 4%전후를 유지하고 있어 자산운용의 편중이 심화됨.

○ 특히 채권은 매도가능증권에서 3.2%p 증가함과 동시에 시중수익률도 1.6%p나 하락 하면서 전체 운용자산수익률 하락을 주도했음.

○ 유가증권은 2.9%p 증가한 반면 대출채권은 2.7%p가 감소했으며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이 유사한 비중으로 감소해, 신규자산증가는 채권투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표 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4								FY2004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1.8	3.1	2.0	2.9	2.0	3.0	1.6	3.4	1.9	3.6
유 가 증 권	55.6	7.5	56.6	6.6	57.2	6.3	57.7	6.2	58.5	5.8
○ 단기매매증권	3.1	7.2	2.7	8.9	3.5	8.0	3.1	7.6	3.0	6.8
- 주 식	0.2	9.8	0.2	14.9	0.2	16.2	0.2	25.3	0.2	27.1
- 채권 등	1.8	8.7	1.7	11.0	1.6	11.2	1.6	8.6	1.9	6.1
- 수익증권	1.1	4.5	0.9	4.8	1.7	3.6	1.3	4.0	0.9	4.1
○ 매도가능증권	43.9	7.5	45.3	6.8	45.5	6.5	46.6	6.4	47.4	5.7
- 주 식	3.8	2.4	3.7	3.1	3.6	2.3	4.0	3.0	3.9	2.0
- 채권 등	37.6	7.8	39.1	7.2	39.6	7.0	40.3	6.8	40.8	6.2
- 수익증권	2.5	12.4	2.5	6.8	2.3	5.7	2.4	5.7	2.8	3.0
○ 만기보유증권	7.7	4.8	7.7	4.9	7.4	5.0	7.1	5.2	7.3	5.8
- 채권 등	7.7	4.8	7.7	4.9	7.4	5.0	7.1	5.2	7.3	5.8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45.5	0.8	6.9	0.8	1.8	0.8	1.2	0.8	4.8
대 출 채 권	25.4	9.8	24.7	10.0	23.7	10.0	23.5	10.1	22.7	9.3
부 동 산	5.0	4.9	4.8	4.3	4.6	5.0	4.6	4.7	4.5	3.7
운 용 자 산 계	87.9	7.9	88.2	7.4	87.4	7.2	87.3	7.1	87.7	6.5
비 운 용 자 산	12.1	6.9	11.8	6.0	12.6	10.7	12.7	8.8	12.3	3.0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2.2)	7.8	100.0 (92.4)	7.2	100.0 (91.4)	7.6	100.0 (91.2)	7.3	100.0 (90.9)	6.1
특 별 계 정 자 산	7.8	5.4	7.6	4.7	9.4	5.1	9.7	5.1	10.0	4.5
총 자 산	100.0	7.6	100.0	7.0	100.0	7.4	100.0	7.1	100.0	6.0
총 자 산 규 모	1,915,209		1,993,836		2,099,079		2,116,098		2,170,712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5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설계사와 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에 의한 초회보험료 비중은 퇴직보험의 초회보험료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설계사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9.3%p 감소한 37.7%로 설계사의 종목판매중은 변액보험이 70.4%를 차지함으로써 일반계정 개인보험에서의 비중축소를 상쇄함.
-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4.1%p 축소된 32.2%로, 이는 퇴직보험에 의한 임직원비중 확대와 변액보험 설계사판매에 의한 상대적 비중축소로 분석됨.
- 대리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1.7%p 감소한 6.6%로 축소되었으며, 금회계년도부터 T/M, C/M판매가 다른 채널판매로 분류되어 포함되기 시작함.

〈표 10〉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 직 원	15.9	17.8	8.1	13.6	29.2	8.5	16.5	23.5
설 계 사	42.6	37.2	47.0	33.5	28.3	49.6	38.2	37.7
대 리 점	7.9	7.5	8.3	5.9	6.3	8.9	7.2	6.6
중 개 사	-	-	0.0	0.1	0.0	0.0	0.0	0.0
T/M	3.1	2.3	0.3	0.2	0.2	0.3	0.3	-
C/M	0.1	0.1	0.0	0.0	0.0	0.0	0.0	-
방카슈랑스	30.1	34.8	36.3	46.7	36.0	32.6	37.8	32.2
기 타	0.3	0.3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632	64,383	11,868	16,443	21,974	16,569	66,853	15,713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5 1/4분기말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수뿐만 아니라 임직원까지 전통적 판매조직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사를 제외한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에서 임직원 수가 감소하였으며 대리점의 경우는 중소형사를 제외한 대형사와 외국사에서 축소됨.
 - 한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수가 줄었으나, 외국사의 경우 일부사를 제외한 경우 오히려 설계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임 직 원	26,201	26,237	26,015	25,412	25,276
설 계 사	145,496	144,714	139,945	136,947	134,172
대 리 점	7,268	7,003	6,718	6,672	6,572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손해보험 전체>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8% 성장한 6조 1,236억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과 건강보험의 판매 증가와 방카슈랑스로 인한 저축성 보험의 성장으로 16.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6%의 성장을 나타내었고,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의 성장회복과 특종보험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6.8%의 성장률을 나타냄.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45조 52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6% 성장하였음.

○ 원수보험료 성장 및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것임.

<표 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55,748	57,031	62,222	57,171	232,173	61,236
	9.0	8.1	9.3	8.1	8.6	9.8
총자산	395,180	409,196	426,766	434,720	434,720	450,522
	1.8	3.5	4.3	1.9	15.0	3.6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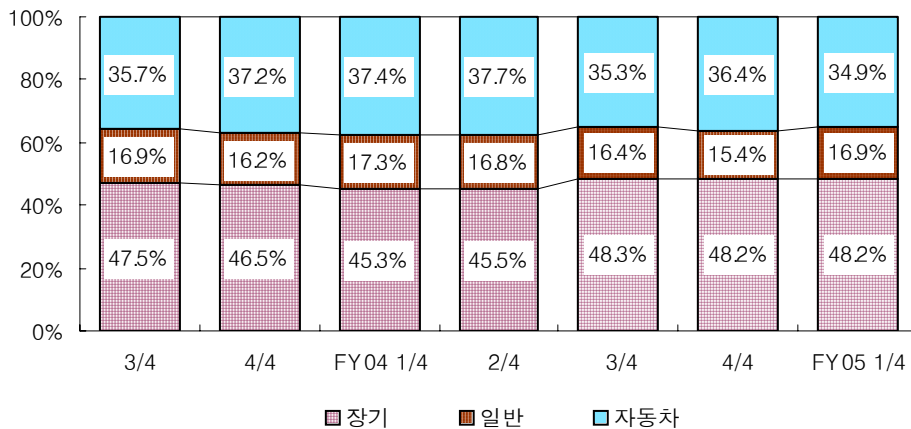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48.2%, 자동차보험 34.9%, 일반손해보험 16.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장기손해보험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보다 2.9%p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각각 2.5%p, 0.5%p 감소하였음.
- 일반손해보험의 부분별 점유율에서는 특종보험이 0.3%p 증가, 해상보험은 동일한 점유율을 나타냈고 나머지 종목은 점유율이 축소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5 1/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1,3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성장하였음.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05년 6월 현재 2.5%로 전년동월 2.7%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와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시장의 점유율 증가 등 원수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효과로 인하여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통합형보험, CI보험 등의 판매호조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성장한 2조 6,459억 원을 나타냄.
- FY2005 1/4분기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상해 15.5%, 질병 5.4%, 저축성 3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 전체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28.9%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상해와 저축성이 각각 7.5%, 35.2% 증가했고 질병이 2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증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한 2,255억원을 나타내었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 FY2005 1/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1,3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하였음.
- 전체 해상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하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으나 선박보험은 27.6%로 큰 증가를 나타냄.
- 화재보험은 2005년 5월 보험료 인상, 개별할인할증(SRP) 재정비를 통한 부담요율경쟁 감소효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794억원을 기록함.
- 2005년 5월 참조위험률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풍수재담 보요율인상 등이 보험료수입 확대요인으로 작용함.
- FY2005 1/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5,745억원으로 13%의 성장을 기록함.
- 특종보험 종목별 성장률을 보면 종합보험 0.3%, 책임보험 1.5%, 기술보험 30.7%, 상해보험 64.4% 등으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63	664	825	685	2,937	794
	성장률	-7.5	-12.8	-6.4	-1.0	-7.1	4.1
	구성비	1.4	1.2	1.3	21.2	1.3	1.3
해 상	보험료	1,263	1,410	1,263	1,135	5,071	1,399
	성장률	-9.5	1.8	9.7	-13.3	-3.2	10.7
	구성비	2.3	2.5	2.0	2.0	2.2	2.3
자동차	보험료	20,851	21,528	21,991	20,838	85,208	21,386
	성장률	10.1	4.2	8.3	5.8	7.0	2.6
	구성비	37.4	37.7	35.3	36.4	36.7	34.9
보 증	보험료	2,353	2,179	2,218	2,268	9,018	2,255
	성장률	-2.9	-3.6	-1.8	-8.3	-4.3	-4.2
	구성비	4.2	3.8	3.6	4.0	3.9	3.7
특 종	보험료	5,083	5,088	5,691	4,507	20,369	5,745
	성장률	11.8	14.2	10.7	14.6	12.7	13.0
	구성비	9.1	8.9	9.1	7.9	8.8	9.4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08	214	188	186	796	129
	성장률	51.9	38.4	15.3	7.0	26.7	-37.8
	구성비	0.4	0.4	0.3	0.3	0.3	0.2
장 기	보험료	22,795	23,553	24,710	25,295	96,353	26,459
	성장률	9.2	12.2	13.3	14.3	12.3	16.1
	구성비	40.9	41.3	39.7	44.2	41.5	43.2
개 인 연 금	보험료	1,746	1,680	1,695	1,679	6,799	1,684
	성장률	2.5	-1.5	-1.3	-3.9	-1.1	-3.5
	구성비	3.1	2.9	2.7	2.9	2.9	2.8
퇴 직 보 험	보험료	686	715	3,642	579	5,622	1,383
	성장률	113.2	84.3	4.4	-22.9	13.6	101.8
	구성비	1.2	1.3	5.9	1.0	2.4	2.3
계	보험료	55,748	57,031	62,222	57,172	232,173	61,236
	성장률	9.0	8.1	9.3	8.1	8.6	9.8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확대되었으며 보증보험의 보험료 수입 감소로 전업사의 비중이 축소됨.

-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8%로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23.3%로 0.3%p 감소하였음.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분기와 동일하게 0.1583을 나타냄.

<표 14>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점유비	상위4개사	71.0	71.1	71.1	71.1	71.1	71.8
	일반사 계	94.7	94.8	94.9	94.8	94.8	95.0
	전 업 사	4.3	4.1	4.0	4.0	4.0	3.8
	외 국 사	1.0	1.1	1.2	1.2	1.2	1.2
허 핀 달 지 수		0.1588	0.1595	0.1588	0.1583	0.1583	0.1583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 증가와 투자영업이익의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한 3,763억원을 나타냄.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1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2,502억원으로 축소되었음.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흑자폭이 증가하여 872억원 흑자를 시현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 4,059억원을 나타냄.

<표 15> 손해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195,477	49,897	101,551	154,488	208,597	55,353
	투자영업	23,056	5,736	12,308	19,292	25,320	5,444
	기 타	6,713	1,119	2,273	6,547	7,632	2,009
	계	225,245	56,751	116,132	180,328	241,549	62,805
총 비 용	보험영업	201,558	49,719	101,688	155,279	212,285	54,480
	투자영업	8,102	2,175	3,453	4,654	5,841	1,385
	기 타	8,199	1,276	2,614	8,324	9,706	2,376
	계	217,859	53,170	107,755	168,257	227,833	58,241
수 지 차	보험영업	-6,081	178	-137	-791	-3,689	872
	투자영업	14,954	3,561	8,855	14,638	19,479	4,059
	기 타	-1,487	-157	-340	-1,777	-2,074	-367
	계	7,387	3,581	8,377	12,070	13,717	4,564
법 인 세		1,751	665	1,426	2,071	2,323	801
당기순이익		5,635	2,916	6,952	10,000	11,394	3,763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97.4%를 기록함.
- 합산비율 개선은 사업비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목에서의 손해율 감소에 기인한 것임.
-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함.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75.3%임.
- 해외원보험의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15.9%p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손해율이 개선되었음.

<표 1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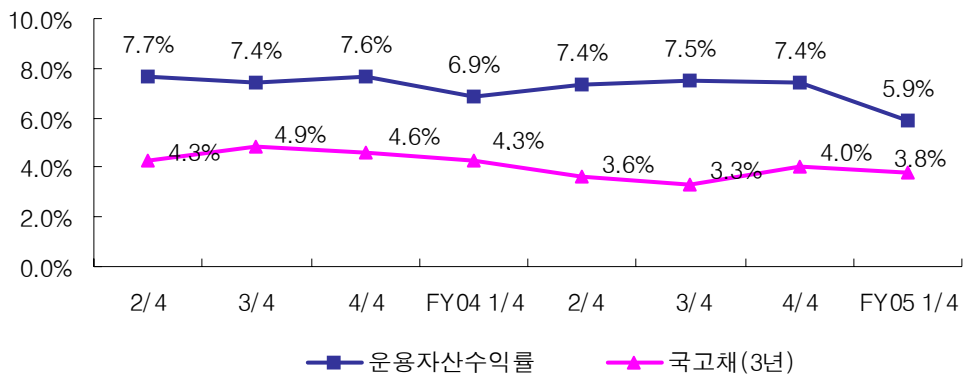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1/4	2/4	3/4	4/4	1/4
손해율	화재보험	61.7	52.7	58.8	54.8	56.4	38.8
	해상보험	57.7	61.3	51.3	49.3	49.5	42.8
	자동차보험	76.7	71.6	72.3	72.7	72.7	71.5
	보증보험	44.1	46.6	27.6	21.9	25.3	27.9
	특종보험	57.8	43.1	47.4	46.5	52.0	40.3
	해외원보험	47.5	13.2	44.3	49.4	41.0	29.1
	장기보험	82.4	85.9	86.6	87.1	87.9	85.6
	개인연금	121.8	117.9	118.4	118.1	123.8	117.6
전 체		77.6	76.1	76.6	76.6	77.7	75.3
사업비율		24.3	21.8	22.7	23.0	23.1	22.1
합산비율		101.9	97.9	99.2	99.6	100.8	97.4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0%p 감소한 5.9%를 나타내어 수익률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인 저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투자환경 악화와 FY2004 4/4분기 이후 금리반등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자산수익률이 낮아짐.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해외투자에 따른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매입한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전년동기대비 91.5% 하락하였음.
- 대출채권의 수익률은 저금리 지속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7.9%를 기록하였음.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매도가능증권의 주식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0.1%p 증가한 5.7%인 반면, 채권

등은 비중이 꾸준히 확대하여 2.9%p 증가한 33.3%를 나타냄.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18.0%, 부동산은 0.6%p 감소한 7.9%를 나타냄.

<표 17>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5.1	3.8	4.7	3.8	4.9	3.7	4.4	4.0	4.0	5.9
유 가 증 권	54.6	7.3	54.9	8.1	55.1	8.3	55.3	8.1	55.9	5.9
○단기매매증권	14.7	7.3	14.4	8.3	13.8	9.1	12.4	8.9	12.2	6.9
- 주 식	0.7	21.2	0.5	32.8	0.6	28.2	0.5	31.5	0.6	44.7
- 채 권 등	9.2	7.4	8.3	8.5	7.4	10.6	7.2	9.7	11.6	5.7
- 수익증권	4.8	4.9	5.6	4.9	5.8	4.7	4.7	4.7	0.1	4.3
○매도가능증권	36.3	7.3	37.1	7.9	38.0	7.7	39.5	7.5	40.0	5.5
- 주 식	5.6	10.0	5.4	11.7	5.5	8.5	5.8	9.9	5.7	5.2
- 채 권 등	30.4	6.8	31.2	7.2	31.9	7.6	33.1	7.1	33.3	5.6
- 수익증권	0.3	0.9	0.4	-1.3	0.6	0.1	0.6	6.0	0.9	2.0
○만기보유증권	3.0	7.2	2.9	7.1	2.8	9.9	2.9	9.1	3.1	5.9
- 채 권 등	3.0	7.2	2.9	7.1	2.8	9.9	2.9	9.1	3.1	5.9
○투자주식 ¹⁾	0.5	14.8	0.5	26.1	0.5	21.3	0.5	24.8	0.6	34.3
대 출 채 권	18.5	8.2	18.4	8.3	18.0	8.4	18.3	8.3	18.0	7.9
부 동 산	8.5	2.9	8.3	2.7	8.1	2.7	8.1	2.9	7.9	2.6
운 용 자 산 계	86.7	6.9	86.2	7.4	86.1	7.5	86.1	7.4	85.7	5.9
비 운 용 자 산	13.3	-	13.8	-	13.9	-	13.9	-	14.3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6.1	100.0	6.5	100.0	6.7	100.0	6.6	100.0	5.1
	(96.8)	-	(96.7)	-	(96.2)	-	(96.4)	-	(96.6)	-
특 별 계 정 자 산	3.2	-	3.3	-	3.8	-	3.6	-	3.4	-
총 자 산	100.0	5.9	100.0	6.3	100.0	6.5	100.0	6.3	100.0	4.9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5 1/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장기저축성보험의 판매 확대에 의하여 전년동기대비 1.7%p 증가한 3.0%를 나타냄.
- 방카슈랑스로 판매된 전체 보험료 1,801억원 중에서 88.9%는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나타남.
- 반면에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전통적 보험채널을 통한 보험료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축소됨.
- 설계사는 전년동기대비 0.9%p, 대리점은 1.3%p가 각각 감소함.

<표 1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1/4	2/4	3/4	4/4	1/4
회사직급	19,323	4,788	9,627	14,500	18,559	6,845
	9.3	8.7	8.6	8.5	8.2	11.4
보험설계사	74,465	19,769	39,889	60,254	80,439	20,929
	35.7	35.9	35.8	35.5	35.5	35.0
대 리 점	105,607	27,551	55,335	84,414	112,552	29,157
	50.6	50.0	49.7	49.7	49.7	48.7
중개인	1,791	486	990	1,700	2,123	766
	0.9	0.9	0.9	1.0	0.9	1.3
TM	3,901	1,061	2,361	3,848	5,445	-
	1.9	1.9	2.1	2.3	2.4	-
CM	1,168	273	642	1,029	1,426	-
	0.6	0.5	0.6	0.6	0.6	-
방카슈랑스	813	718	1,759	3,099	4,538	1,801
	0.4	1.3	1.6	1.8	2.0	3.0
공동인수	1,727	416	776	1,115	1,468	329
	0.8	0.8	0.7	0.7	0.6	0.5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5 1/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은 전 모집조직에 있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은 설계사 조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판매 급증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리점 생산성은 대리점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1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1,207	21,204	21,489	21,731	22,026	24,738
	91,115	22,580	44,800	66,727	84,261	27,669
보험설계사	60,178	62,356	63,759	65,488	61,539	63,818
	123,741	31,703	62,562	92,007	130,712	32,795
대 리 점	48,217	48,352	47,479	46,615	45,953	45,785
	219,024	56,981	116,547	181,088	244,928	63,683

-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최원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

보험가격산출
체계
세부방안을
2006년
상반기까지
마련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선진적 개선을 추진
 - 금감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 Team을 구성·운영, 2006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검토배경>

전통적
3이원방식은
미래현금흐름
의 변동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움

- 전통적인 3이원방식*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결정 및 손익 관리가 곤란함.
 - 기존 3이원방식의 보험료 및 준비금결정은 판매규모, 자산운용 이익률, 위험률의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cash flow)의 변동성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 * 3이원(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 및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 결정
- 경직된 보험가격 산출 및 준비금 적립 기법으로는 부채의 공정 가치(fair value) 평가 등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음.
 - * 국제적 추세는 단순한 현금흐름방식을 벗어나 민감도,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한 확률론적 pricing 기법 및 ALM, hedging 기법 등을 반영한 macro pricing 기법 등으로 전개되고 있음.
- 보험산업의 중장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가격 산출체계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험가격 산출체계를 미래현금흐름(cash flow)의 변동성 및 중합손익을 고려한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보험가격 책정을 유도하고 국제정합성 확보

〈향후 추진 계획〉

준비금제도의 개선 등과 병행

(1) 추진 방향

- 보험가격 산출체계는 보험료의 결정부터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의 계산, 신계약비의 이연, 손익 인식 등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련의 과정임.
- 최근 부채의 공정가치평가에 대비한 준비금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
- 동 제도들이 시행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우선 검토함과 아울러 모든 계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험업계, 학계 등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일정을 마련할 계획임.

Task Force

구성·운영 계획 및 역할분담방안 마련

(2) 향후 일정

- 선임계리사 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기본방향 설명(일자는 미정)
-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개선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 및 회사별 사전 준비 사항 등 논의
- 향후 Task Force 구성·운영 계획 및 역할(감독원, 업계 등) 분담 방안 마련 등

□ 보험산출 체계 개선 관련 향후 세부추진 방안 마련(~2006년 상반기)

- 선진 외국의 pricing 기법 등 사례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
- 최적 가정치, PAD 설정 방법 등에 대한 Guideline 마련
- 보험계리 제도 개선 관련 사안별·단계별 추진 일정 등 마련

(김진억 선임연구원)

2.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

- 금감위·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
 - 4개 분과(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에서 『금융규제개혁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산하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여 7대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
 - 지난 4월부터 기업, 협회, 외국계 금융사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접수하고, 5~6월 동안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 정비방안을 확정함.
 - 건의과제 316건 중 157건이 개선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전체 1,453건중 269건을 개선기로 함.
 - 기업, 협회, 외국인 건의과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금융환경 조성,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지원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면 재정비함.
- 보험분야는 금감위규정 개정과제 20건, 법령 개정과제 4건, 기타과제 7건, 유사행정규제 14건이 개선, 중장기검토, 혹은 폐지되었음.

<보험분야의 개선 내용>

(1) 금감위규정 개선 사항

**보험회사
외화증권
투자제한
완화**

- 보험회사 외화증권 투자제한 완화
 - 국내발행 외화표시증권의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반영하여 투자가능토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
능력 제고**

-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리스크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완화 추진
- ☐ 현행 월 보고서의 제출주기를 분기로 변경하여 업무부담 간소화
- ☐ 보험회사 외화표시 약관대출 허용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을 개정하여 외화보험 계약의 외화약관대출을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외화채권으로 명시

**미비된
신판매채널
관련 규정
정비 추진**

- ☐ 손해조사비를 발생손해액 계정으로 이관하여 지급준비금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 신채널 관련 규정의 운영지침 재정립
 - 신판매채널의 확대 및 경쟁으로 고율의 수수료, 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미비된 신판매채널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 추진
- ☐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회계처리
 - 투자영업이익의 과대 혹은 과소계상 방지를 위해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손익과 환관련이익을 모두 투자영업이익으로 계상
- ☐ 사모방식의 원화표시 주가지수 연동예금 등에 대한 투자 허용
 - 금융회사의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 사모방식의 ELS 등도 파생상품거래 한도에서 제외

**보험회사
대리점의
임원 겸직
허용**

- ☐ 현금흐름변동위험 회피목적의 파생상품거래 규제완화
 -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 ☐ 파생금융거래의 최대손실 발생가능액 산출에 관한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자의적 규정해석을 방지

- ☐ 보험대리점의 대형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임원의 자회사 보험대리점의 임원 겸직을 허용
- ☐ 신용공여 해석의 명확화 또는 완화
 - o 보험계약자가 입금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 ☐ 지급여력비율기준 설정 및 적기시정조치
 - o 자본확충, 자산매각 등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회사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대상에서 제외
- ☐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제한
 - o 골동품, 서화의 취득을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2) 법령 개정 과제

- ☐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를 총자산의 30%로 확대

(3) 기타 과제

- ☐ 국내 및 외국사 모두에 표준화된 단체보험요율 적용 허용
 - o '05. 1월부터 단체상해보험시장의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업계 공동의 단체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

(최영목 부연구위원)

**표준화된
단체보험요
율 적용**

3.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 결과

<추진배경>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로
전환 추진

□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향후 도입 예정인 RBC*제도, 리스크평가제도(RAAS)** 등 리스크중심 감독제도하에서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선진화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Risk-based Capital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 리스크관리 조직의 운영,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을 보험회사가 추진해야 할 3대 리스크관리 선진화 과제로 선정함.

○ 보험회사는 각사의 경영특성(총자산규모, 자산운용 및 보험영업 행태)을 반영한 세부 실행과제 및 추진일정을 차등화하여 추진함.

<점검결과>

리스크 관리
선진화 이행
실태를 점검

□ 금번 '05. 7월에 9개 대형보험사를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선진화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 1> 선진화 추진과제별 평가

추진과제	평가
① 리스크 관리 조직의 운영	
-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역할	양호
-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의 역할	양호
- 투자부서(Front)와 사후관리부서(Back) 분리	양호
② 리스크 중심 경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	
- 리스크 관리 내부 기준 마련 및 운영	양호
- 회사 전체 리스크 허용 한도 설정 및 활용 (위험 자본량 설정·배분 및 리스크 조정 성과평가 체계)	미흡
- 파생상품, 구조화 증권의 관리 기준 및 현황	미흡
③ 리스크 측정 시스템 개발	보통

리스크 관리
업무프로세스
정립이 미흡

- o 리스크관리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는 대부분 회사들이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좌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나타냄.
- o 리스크 측정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도 금리·보험·시장·신용 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o 리스크관리 업무프로세스 정립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여 경영계획 수립 시에 리스크 측정결과를 반영하는 등 경영정책에 충분히 활용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추진 계획>

- ☐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체 보험회사에 전파할 예정이며, 미진한 사례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임.

-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의 양대 축이 될 리스크 평가제도(RAAS) 및 리스크중심 자기자본 규제제도(RBC제도)를 각각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리스크 평가제도(RAAS)는 '05년 하반기 시험운영을 거쳐 '06년중 시행할 예정임.
-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RBC제도)는 '06년 시험운영을 거쳐 '07년중 시행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은 리스크중심 감독체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노출된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력을 확보하는 등 사전적 조치가 요구됨.

(최원 연구원)

4.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9개 기초지자체
대상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실시

□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 발생 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시행할 계획임(9개 기초지자체).

○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동 보험에 가입한 피해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는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국가의 지원 아래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음.

○ 재해복구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은 복구비 지원액이 실소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인식해 왔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재해관련 정책보험을 시행 중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3년간 50억 투자
계획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는 3년간('06~'08년)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사업내용〉

☐ 보험가입 대상시설

- o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 시범사업 대상지역

- o 9개 기초자치단체(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 등)

☐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의 보조

- o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의 경우 기본가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함.
- o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함.

☐ 보험금 지급

- o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현행 시설별 복구비 기준액의 50~90% 지급함.

☐ 보험료율은 대상지역의 과거 피해현황, 시설별 재해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시설별로 차등화 함.

☐ 보험운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민간손해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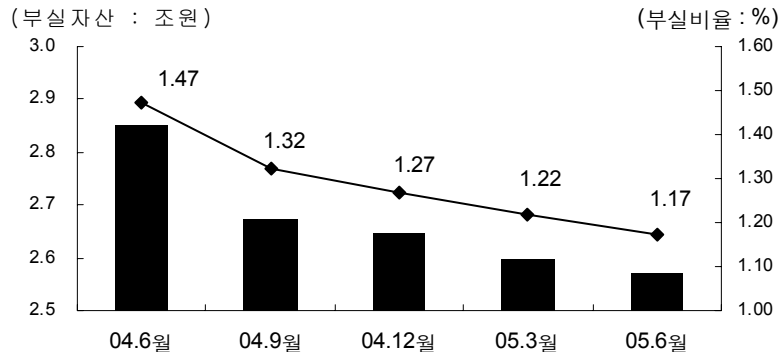
(최원 연구원)

5. 2005년 6월말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현황

'05. 6월말 자산건전성 현황 발표

- 금감원은 '2005년 6월말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현황'에서 보험회사의 부실자산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함.
-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및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부실자산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보험회사 부실자산 비율 추이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5. 9. 13.

<자산 현황>

- '05. 6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26조원(13.5%) 증가한 219.7조원임.

* 대출채권, 유가증권 및 미수금 등 기타자산

- 총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전년동기대비 2.6%p 증가한 반면, 대출채권은 21.0%로 2.5%p 감소함.

보험회사의
부실자산
비율이 개선

<부실자산 현황>

- 부실자산(고정이하 분류자산)은 2조 5,7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06억원 감소함.
- 부실자산비율은 1.17%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각각 0.30%p, 0.05%p 개선됨.
- 가계대출의 연체율 개선, 국공채 등 저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1> 부실자산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분류대상자산			부실자산		
	'04.6말 (A)	'05.6말 (B)	증감 (B-A)	'04.6말 (A)	'05.6말 (B)	증감 (B-A)
유가증권	1,338,337	1,587,176	248,839	3,655 (0.27)	2,726 (0.17)	△ 929 (△ 0.10)
대출채권	541,985	551,208	9,223	20,895 (3.86)	19,065 (3.46)	△ 1,830 (△ 0.40)
기타자산	54,934	58,555	3,621	3,984 (7.25)	3,937 (6.72)	△ 47 (△ 0.53)
총 계	1,935,255	2,196,939	261,683	28,534 (1.47)	25,728 (1.17)	△ 2,806 (△ 0.30)

주 : ()는 부실자산비율

<유가증권 부실 현황>

- '05. 6월말 현재 분류대상 자산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증권(158.7조원)의 부실자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10%p 하락한 0.17%를 나타냄.
- 주로 국공채 및 특수채 등 저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대출채권 부실 현황>

- '05.6월말 기업부문의 부실자산비율은 전년동기말 대비 0.95%p 하락한 10.24%(1조 1,776억원)를 나타냄.
- 가계부문의 부실자산비율은 전년동기말 대비 0.29%p 상승한 1.67%(7,289억원)를 나타냄.

<대출채권 연체 현황>

- 대출채권의 연체율은 전년동기 대비 0.09%p 하락한 6.4%로 나타남.
-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반면,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대출채권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0.14% 상승함.
- 기업대출은 보험회사 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전체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최원 연구원)

6.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및 영향

제2단계 방카슈랑스 보험시장의 변화를 분석

<검토배경>

- 금감원은 '05.4월 제2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이후 그 영향분석의 일환으로 '05.4~6월 기간동안 방카슈랑스 보험시장의 변화를 분석함.
-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상품 및 판매일정의 단계별 시행, 은행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인하(49%→25%),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기준 마련 및 상품심사 강화 등 방카슈랑스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한 바 있음.
- 금년 2/4분기동안 전 금융회사의 방카슈랑스 실적을 기초로 지난 2단계 방카슈랑스 제도보완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였음.

<방카슈랑스 현황>

- '05.4~6월 기간동안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조 1,340억원(생보 9,539억원, 손보 1,801억원)의 보험을 판매함.
-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63% 대폭 증가하는 등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를 통한 시장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보험사 전체채널을 통한 판매액과 비교하여 수입보험료 기준 5.7%, 초회보험료 기준 11.1%를 차지함.
- '05.4~6월 기간동안 은행 등의 보험판매 대가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는 1,421억원으로 전년동기(740억원) 대비 92% 증가함.

<표 1>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04.4~6월			'05.1~3월			'05.4~6월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6,247	713	6,960	9,223	1,436	10,659	9,539	1,801	11,340*

* 110개 금융회사(은행17, 증권21, 저축은행72)에서 판매(은행비중이 99%)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① 보험산업 측면

- ☐ '04.12월 은행과 제휴하지 못한 보험사는 7개사에 달했으나 '05.9월 현재 1개사(럭키생명)로 감소됨.

중소보험사의
부실우려 감소

- ☐ 국내 중소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3%p 확대*되어 부실우려가 다소 해소됨.

* 대형사 M/S는 40%로 전년 동기대비 동일, 외국사는 21%로 3%p 감소, 국내 중소사는 39%로 3%p 확대

② 모집종사자 측면

모집종사자의
실업우려 감소

- ☐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단계 허용상품 및 일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모집종사자의 실업우려가 해소됨.

o '05. 6월말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인원은 20만명으로 방카슈랑스 시행 전과 변동이 없음.

③ 금융소비자 측면

불완전 판매
감소

-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완전판매 노력 강화로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감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었음.

* 대형사에 접수된 계약취소 요청건을 Sample 분석결과 보험청약 후 계약취소비율이 15%에서 13%로 2%p 감소함.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보험료 인하

-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신계약비는 표준예정신계약비의 70%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05. 7월이후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2.5%내외 추가로 인하(1단계 인하분을 포함할 경우 5%내외)됨.

<평가>

- 감독당국은 2단계 방카슈랑스에 대비한 제도보완이 시의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함.
 - 중소형 보험회사의 부실화 방지 및 모집종사자의 실업 예방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은행 등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나타남.
 - 금년 4/4분기중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및 대출연계 보험판매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검사국)할 계획임.

(최원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1. 미국 동향

<미국의 개인소득보상보험 판매현황>

해약불가능형
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갱신보증형은
강세 유지

- 2005년도 6월말 시점에 신규 연환산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가 증가하였으며 판매된 상품 수는 전년동기대비 3% 감소
- 해약불가능(noncancellable)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해약불가능 상품이 신규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판매된 해약불가능 상품의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함.
 - 판매된 상품 중 47%가 해약불가능 상품인데 반해, 이들 상품의 보험료는 73%를 차지함.
 - 14개 보험사 가운데 7개사의 해약불가능 상품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업계 전체로 볼 때 연환산 보험료가 2% 감소
- 2005년에도 갱신보증(guaranteed renewable) 상품은 지속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함.
 - 15개 보험사 가운데 9개사의 갱신보증형 개인소득보장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
 - 이로 인해 2004년 6월에 비해 신규상품은 7%가 증가하였으며, 보험료 수입은 12%가 증가

<표 1> 미국의 2005년 6월말 시점에 개인소득보장보험 판매실적

	상품 수	'04~'05 변화	연환산 보험료	'04~'05 변화
해약불가능형	85,827	-12%	\$144,525,954	-2%
갱신보증형	95,885	7%	\$54,696,770	12%
합계	181,712	-3%	\$199,222,724	1%

상위 5개사의
보험료가
66%를 차지

- 개인소득보장보험 부문에서 상위 5개사의 연환산 신규보험료가 66%를 차지(Berkshire Life, MassMutual, MetLife Companies, Northwestern Mutual Life, UnumProvident)
 - 전년동기대비 2005년 6월말 시점에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상품의 수 측면에서 1%가 감소하였고 보험료 수입은 3%p가 감소
- 2005년 상반기에 개인소득보장보험의 상품당 총 보험료는 \$1,096로서 전년 동기대비 4%가 증가
 - 2005년 상반기에 해약불가능형의 경우 상품당 평균 보험료는 \$1,684로서 전년 동기대비 11%가 증가
 - 갱신보증형의 경우 상품당 평균 보험료는 \$570로써 전년 동기대비 4% 증가
- 해약불가능형과 갱신보증형 모두 상품당 보험료는 회사마다 큰 차이가 없음.
 - 해약불가능형에서 상품당 평균 보험료 범위가 \$1,000미만은 1개사, \$1,000-\$1,499 범위는 4개사, \$1,500-\$1,999 범위는 7개사, 그리고 \$2,000초과인 회사는 2개사
 - 갱신보증형에서 상품당 평균 보험료가 \$1,000 미만인 경우가 11개사이며 \$1,000-\$1,499 범위인 경우가 4개사

**월별
급부금액은
증가 추세**

- 월별 급부금액 데이터를 2년간 발표한 16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품당 월별 급부금액은 증가하는 추세
- 2005년 상반기에 해약불가능형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9%가 증가한 \$3,136이며, 갱신보증형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5%가 증가한 \$1,406로 조사됨.

* 자료 :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urvey, Second Quarter 2005.

(최영목 부연구위원)

<미국, 2005년 손해보험 전망>

-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는 매년 월스트리트의 주식분석가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손해보험전망을 조사함.
- 2005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손해보험 보험료성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합산비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① 보험료 :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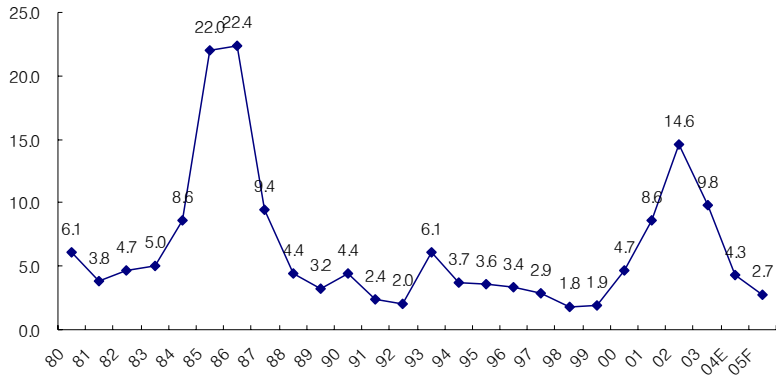
- 평균적으로 원수보험료가 2004년 4.3% 성장이 추정된 것에 비해 2005년은 하락이 전망되어 2.7% 성장이 예상됨.
- 2004년 수치 자체는 2003년 9.8% 증가의 반에 불과하며 가장 비관적인 분석가들의 전망보다도 낮은 수치였음.
- 지난해 2004년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7.4%였으며 가장 낮은 전망치도 5.2%였음.
- 수익이 주로 높은 효율의 결과였던 지난해에 비해, 가격환경이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은 현재의 수익이 보다 직접으로 보유위험의 증가와 수요가 현재의 경제회복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04년까지 보유위험증가는 자동차판매가 증가하는 동시에 저금리가 주택건설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촉진시키면서 관련 개인보험에 집중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04년 기간 중 마침내 사업투자와 고용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근로자재해보장보험(WC)을 포함한 기업보험에 대한 수요가 상승함.

2005년
손해보험은
2.7%로
축소성장이
전망됨

2004년은
자동차판매증가
와 주택건설에
의한
개인보험이
성장함

<그림 1> 원수보험료 성장률추이

(단위 : %)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A.M. Best.

② 합산비율 : 양호

□ 2005년 합산비율은 2003년 100.1, 2004년 추정치인 98.7보다 다소 변동한 98.9로 전망됨.

○ 이는 WTC 테러가 발생하였던 2001년 115.7 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것임.

2004년, 2005년
합산비율은
100이하가 될
것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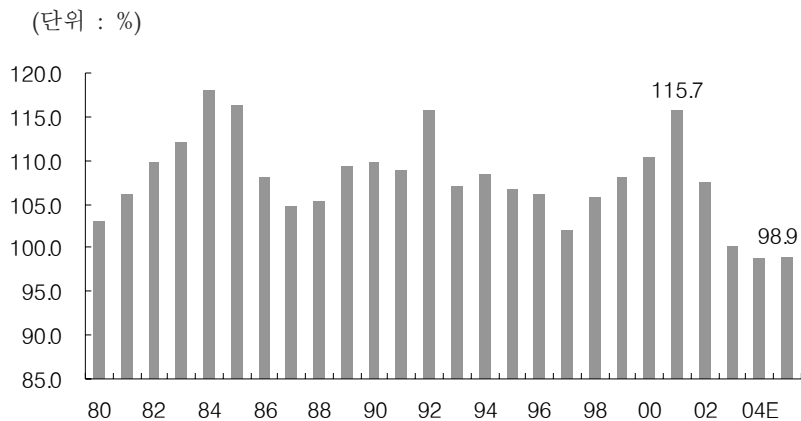
○ 2004년 또는 2005년 합산비율이 100이하일 경우, 손해보험 산업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임.

○ 더구나, 2004년 경험한 재해경험치가 “정상적”(2004년 3분기동안 동남해안을 엄습한 네 번의 허리케인에 대한 손실보전액이 216억 달러로 추정됨)일 경우, 합산비율은 197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95내외일 것임.

일정수준의
ROE달성을
위해서는
보험영업의
기여가 필요

- 투자수익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낮은 수익률과 변동성이 높은 투자환경이 지속될 경우, 보험영업에서의 상당한 기여가 없다면 Fortune 500수준인 13~14%정도의 ROE는 달성할 수 없.

<그림 2> 합산비율 추이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A.M. Best.

③ 2005년 실적 :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우려 증폭

- 2005년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잠재적 요인은 가격설정과 언더라이팅 질서의 붕괴임.

2005년 실적에는
가격설정과
언더라이팅
질서가
중요요인

- 가격질서에 대한 관점 차이가 2005년 0.9%에서 4.0%에 이르는 순경과보험료 성장에 대한 분석가들의 전망 차이를 설명하며 지금까지는 가격은 분명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부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
- 주요한 외부위험 중에, 불법행위비용(tort costs)이 보험사 재무 성과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임.

- 집단소송(class action), 석면과 의료과실에 대한 개혁법안이 무산된 것은 2004년 산업계의 가장 아쉬운 일이나 최소한 의회는 2005년에 집단소송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임.
- 또한 테러위험보험법이 2004년 확장되지 못한 것도 실망스러운 사항이며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많은 기업성 계약(근로자보상 제외)은 법(현재는 2005년 말 소멸예정)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테러위험 담보가 제외될 것임.

* 자료 : III, "GROUNDHOG FORECAST FOR 2005", SPECIAL REPORT, 2005.

(김진익 선임연구원)

<미국, 생명보험가입률 추세 분석>

□ LIMRA는 1960년 처음 미국생명보험가입조사를 실시, 생명보험가입추세를 측정하고 인구의 보험가입금액 충분성을 측정해왔음.

○ 2005년 5,128명(2,143가구)을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생명보험과 생명보험가입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

LIMRA,
생명보험가입
성향에 대한
조사 실시

□ 미국의 생명보험가입가구는 40년간의 하락을 끝내고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20%이상의 가구가 생명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개인생명보험가입도 지난 6년간 몇몇 집단, 즉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 퇴직연령에 다다른 가정, 그리고 소득이 5만 달러 이상인 가정에서 하락해 왔음.

① 생명보험가입추이의 특징

□ 본 조사에서는 개인과 단체생명보험 양쪽 모두 가입하는 가구의 변화추이를 밝힘.

○ 즉, 근로연령가구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모두 소유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생명보험가입
금액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짐

□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어느 때보다 보험가입금액이 높아졌음.

○ 이는 일부 과거보다 장기의 평균보험료기간을 갖는 저가 정기보험의 이용가능성 때문임(2004 개인생명보험판매조사에 따르면 정기보험이 모든 신계약의 43%를 차지).

**여전히
부유층에서도
보험수요가
존재함**

- ☐ 많은 가구가 종신생명보험을 포기하고 정기보험에만 가입함.
 - 1992년 20%에 비해 2004년에는 1/3의 가구가 정기보험만 가입함.
- ☐ 일부 특정 시장은 여전히 생명보험을 충분하게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가구의 44%(4천 8백만 가구)는 생명보험에 충분히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소득이 10만 달러이상인 부유한 가구조차도 1/3이 불충분하게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함.
- ☐ 약 2천9백만 가구의 가정은 1년 안에 자신들 또는 타인을 위해 생명보험을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 저소득, 중간소득, 또는 풍요한 소득이 있는 시장이건 대상의 약25%가 1년 안에 생명보험을 구입할 계획임.

**가구당
가입금액과
원하는 수준의
가입금액과는
편리가 있음.**

- ☐ 가구당 가입되어 있는 가입금액과 필요하다고 믿는 가입금액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함.
 - 평균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가구는 3.6년의 가구소득을 대체할 만큼의 가입금액에 가입되어 있지만 5.7년의 대체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각 가구는 세 가지 주요한 이유로 생명보험구입을 연기시킴
 - 생명보험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구매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거나 어떨 때는 단순히 결정을 지연하고 있음.

② 2004년 생명보험가입추세

- ☐ 지난 10년간 꾸준히 3/4정도의 가구가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개인생명보험소유 가구비율은 40년간 동안 감소해 1998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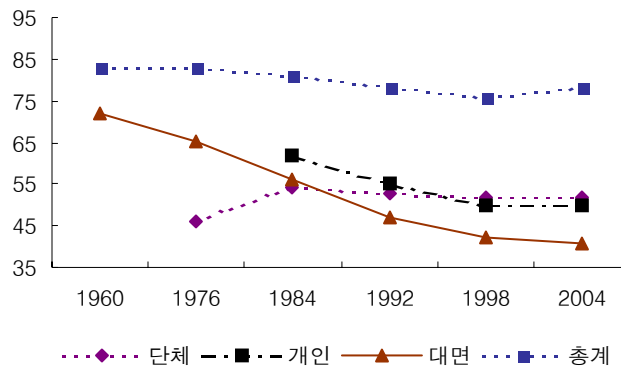
- 2004년 말 미국가구의 1/2이 개인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개인생명보험가입률은 일정하게 유지됨.

③ 40년간의 감소 종식

설계사규모의
감소에 따라
대면방식의
가입가구는
감소

- 1960년대 이후, 설계사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오늘날 대면방식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가구는 감소했음.
- 단체생명보험가입은 결혼한 여성들이 1970년대 대거 근로인력에 편입됨과 함께 지난 20년간 약 52%수준을 유지

<그림 1> 미국 생명보험가입추세



□ 가구당 가입금액이 높아짐.

- 생명보험가입가구의 가입금액은 1998년 이후 경상가격으로 5만 달러 이상 증가하여 2004년에 거의 27만 달러에 이름.
- 가구당 개인생명보험 평균가입금액은 지난 1년간 단체보험보다 급속히 증가함(거의 10만 달러 증가한 반면 단체는 5만2천 달러 증가).
- 2004년 각 가구는 1998년 2.4년에 비해 평균 3.6년에 대한 가구 수입을 대체할 만큼의 생명보험을 가입함.

단체보험보다
개인생명가입금
액이 급속히
증가

<표 1> 미국 가구당 가입금액추세

(단위 : US\$)

	가입금액(평균)			가입금액(중앙값)		
	1992	1998	2004	1992	1998	2004
생명보험	191,000	217,400	269,700	109,200	116,000	130,500
개인생명	156,900	174,000	255,100	78,400	87,000	119,200
대면판매	151,700	180,100	263,900	78,400	92,800	125,000
단체생명	101,800	121,100	153,900	62,800	63,800	86,100

* 자료 : LIMRA, "Trends in Life Insurance Ownership Among U.S., Households", 2005.

(김진익 선임연구원)

2. EU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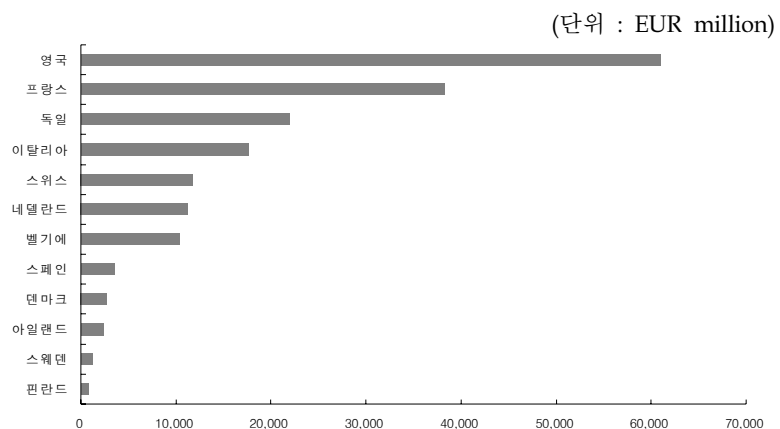
<유럽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의 유통채널 분석과 전망>

① 유럽지역의 생명보험과 연금상품 시장 규모

유럽에서
생명보험과
개인연금 상품
유통시장은
영국이 가장
큰 규모

- 유럽에서 생명보험과 개인연금 상품시장은 영국이 가장 큰 규모임.
 - 2003년도 영국의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의 신계약보험료는 EUR61.0billion(2003년말 원/유로 환율로 환산해서 약 92조원)으로 유럽에서 생명보험과 개인연금 상품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 영국에 뒤이어 프랑스와 독일의 생명보험과 개인연금 상품의 판매액은 각각 EUR38.2bn과 EUR28.9bn을 기록하였으며, 양국 모두 세제혜택으로 인해 생명보험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
 - 이 밖에 이탈리아(EUR17.7bn), 스위스(EUR11.8bn), 네덜란드(EUR11.6bn), 그리 벨기에(EUR10.4bn) 등의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시장이 두드러짐.

<그림 1> 유럽지역의 생명보험 및 개인연금 상품 신계약보험료



자료 : Datamonitor, "Life and Pensions Database", 2005.

FSAP는
유럽의
생명보험과
연금
판매회사
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

② 향후 5년간 유럽 보험시장 변화의 주요인: 규제, 재정부담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소비자의 복잡성

- 유럽 금융서비스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FSAP(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과 연금 판매회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IMD(Insurance Mediation Directive)는 금융중개기관이 해외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ISD2(The Market in Investment Service Directive)는 투자기업이 유럽에서의 영업을 허용토록 하고 있음.
 - MiFiD(The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는 소비자 성향을 테스트하는 내용에 관한 표준규칙을 제시하고 있음.
 - DMD(Distance Marketing Directive)는 cold calling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에 대해 계약철회기간(cooling-off period) 30일을 설정하고 있음.
- 자본적정성의 규제조건은 금융자문사의 30% 수준까지 폐업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음.
 - 유럽연합의 자본적정성지침(CAD : Capital Adequacy Directive)에 의해 금융중개회사는 필수완충자본(Required Supplemental Capital)의 50%까지 적립해야 될 것으로 예상됨.
- 각종 규제 및 재무적 요구사항의 증가는 기업들에게 중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규제변화는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소형사들의 30%까지 폐업하거나 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중기적으로는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 판매채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개인연금의
수요증가는
생보 및 연금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

-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생명보험과 연금 판매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30년 후에는 부양률의 증가로 인해 개인연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개인연금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금융자문중개채널을 통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지역 내의 부유층 및 소비자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독립적인 금융자문채널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부유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투자대상에 관심이 많을 것임.
 - 소비자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금융전문 언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
 - 더불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가격의 붕괴는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향후에는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 ③ 방카슈랑스전담회사의 영역을 설계사, 독립금융자문사(IFA), 비대면채널 등이 잠식하기 시작
 - 방카슈랑스 채널은 향후 10년 동안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그 이후에는 금융자문채널의 성장에 밀려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
 - 금융상담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증가로 인해 다중전속설계사(multi-tied agent)는 현재 9%의 시장점유율에서 2009년 2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보 및 연금 상품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32%인데, 향후 5년간은 시장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전속설계사는 2004년 현재 유럽에서 생보 및 연금 판매시장에서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는 4% 정도로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즉, 소비자들은 전속보다는 다중전속에 의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채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 보험회사 직원은 현재 유럽에서 생보 및 연금 상품의 19%가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직원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9년에는 16%까지 감소할 전망

* 자료 : DATAMONITOR, "European Life and Pensions Distribution Databook", 2005. 03.

(최영목 부연구위원)

3. 일본동향

<금융청, 『보험회사에 대한 종합적 감독지침』 마련>

2005.8월,
『보험회사에
대한 종합적
감독지침』
마련

은행의
보험모집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치

□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에 대한 종합적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8월 12일부터 배포하였으며, 이하에서는 동 감독지침중에서 2000년 12월 22일부터 실시되었던 「II-3-3-9 은행등에 대한 보험모집의 위탁」에 관하여 요약 정리함.

① 은행 등에 대한 보험모집의 위탁·관리

□ 은행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그 모집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 및 보험모집의 공정을 확보하는 관점에서의 조치

○ 은행 등의 위탁에 관하여 ① 은행 등에서의 위탁을 고려할 때 위탁 은행 선정방법, ② 위탁 보험종목 및 예상 판매량, ③ 은행 등에 대한 판매지원(연수 등)에 관한 보험회사의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한 위탁 내용을 정할 것

○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 및 은행 등에 의한 보험모집의 공정한 확보 관점에서 타당할 것

□ 은행 등에 대한 보험모집의 위탁시 행사는 보험회사는 자체 경영관리의 일환으로 그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관점에서의 조치

○ 은행 등에 의한 보험모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

○ 은행 등에 의한 보험모집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을 초과하여 현저하게 증대하는 경우, 또는 특정 은행 등에 대한 보험모집의 의존 수준이 당초 위탁방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할 것

은행이
비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고객동의를
득하기 위한
조치 필요

② 비공개금융정보·비공개보험정보의 취급

- 은행이 비공개금융정보를 보험모집에 관한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하의 각 경우별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득하기 위한 조치
 - 대면 모집의 경우, 당해모집에 앞서서 서면에 의한 설명을 수행하고, 계약신청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득하는 방법
 - 우편 모집의 경우, 당해업무에 앞서 설명한 서면을 송부하여 보험신청서의 송부 등 보험모집 전에 동의를 득하는 방법
 - 전화에 의한 모집의 경우, 당해 업무에 앞서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득함을 기록하여 정보이용에 대해 설명한 서면을 송부하여 계약신청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득하는 방법

③ 은행 등의 보험모집 지침

보험모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여부
관리

- 보험모집의 공정한 확보를 위해 은행 등이 정한 보험모집지침에 이하의 사항의 규정 여부
 - 고객에 대하여 모집을 행하는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회사의 상호 명칭을 명시하고, 인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리스크의 소재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수행할 것
 - 복수의 보험계약 중에 고객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은행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보험모집에 관하여 고객에 손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은행 등에 모집대리점으로서의 판매책임이 있음을 명시할 것
 - 은행 등에 의한 고충·상담에 대한 명시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고객의 고충·상담에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적절한 고객대응을 수행할 것

은행의
보험모집제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조치
강구 필요

④ 은행의 보험모집제한 확인 등

- 은행의 은행 등 보험모집제한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하의 조치
 - 보험모집시 사전에 고객이 은행 등 보험모집제한 등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당해 고객이 은행 등 보험모집제한에 대한 해당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
 - 모집을 행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인수 보험회사에 송부할 때 보험모집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득한 고객의 근무지 등 정보를 은행의 대출 등에 관한 정보와 조합하여 고객이 은행 등 보험모집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 상기의 조치에 따라서 고객이 은행 등 보험모집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모집 수수료, 기타 보수에 대하여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반환하는 체계를 정비
- 은행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은행 등의 기타 업무의 적절한 운영에 지장의 초래 여부

자료 : 保險毎日新聞, “銀行等に對する保險募集の委託”, 2005.8.17

(조혜원 선임연구원)

〈S&P, 거대지진 발생시 일본 손보업계 영향 시산〉

S&P,
거대지진의
일본 손보업계
영향 시산

□ 일본 각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 지진 보험가입자가 증가하고 기업에서도 보험료 부담 여력의 회복이나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배경으로 지진보험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

○ S&P에서는 수도권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및 영향 정도에 대하여 관동대지진급의 거대 지진이 수도권에 발생한 경우를 가정으로 시산하였음.

□ S&P의 시산에서는 손보업계(손해보험협회 가맹 22개사 합계)의 보험금 지급 총액이 약 6조 6,000억엔에 달하였음.

○ 보험금 지급규모에서는 1992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앤드류가 약 2조 4,000억엔으로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가 될 것임.

S&P 시산결과,
총 6조
6,000억원의
보험금 지급
예상

① 보험금 지급규모

□ 수도권에서 발생한다고 가정되어 있는 거대지진에는 수도권 직접형과 관동대지진형의 2가지 타입이 있음.

○ 정부 중앙방재회의는 지진의 절박성은 수도권 직접형 지진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S&P에서는 경제적 피해가 보다 큰 규모 8 정도의 관동대지진급의 지진을 가정하였음.

□ 지진발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주된 보험은 지진보험, 지진화재비용보험금, 지진위험확장담보특약임.

○ 관동대지진급의 지진을 가정한 시산에서는 각각 5조엔, 5,100억엔, 1조엔의 원수보험금이 지급되며, 그 외의 종목도 포함하여 원수보험금은 6조 6,200억엔에 달함.

○ 단, 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5조 5,600억엔으로 손보업계 전체의 순수 보험금지급액은 1조 600억엔으로 시산됨.

- 일본 전체의 경제피해 가정액(미국 RMS사 시산에서는 205조~325조엔)을 감안할 때, 보험을 통한 보상규모는 크지 않은 편임.
- 지진보험은 주로 개인이 주택이나 가계재산의 지진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재보험을 통해 정부가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국민일체의 제도임.
- 지진화재비용보험금은 지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5% 또는 300만엔(공장물건은 2,000만엔)을 한도로 화재보험에서 지급됨.
- 지진위험확장담보에서는 공장이나 상업 등의 지진리스크를 담보하는 기업이 화재보험 등에 특약으로 부대함.

② 수익과 자기자본에의 영향

손보업계에서의
수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

- S&P에서는 시산한 관동대지진 급의 지진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손보의 수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손보 9개사의 200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검토함.
- 주요 9개사의 수입보험료는 약 7조엔으로 지진에 의한 지급보험금 1조 600억엔이 발생하고 손해율은 2004년도 실적의 64%에서 72%로 상승하여 합산비율은 104.3%로 영업수지 2,992억엔의 적자를 기록함.
- 단, 이상위험준비금 8,396억엔을 감안한다면 보험영업수지는 1,313억엔 흑자를 확보하게 될 수 있음.
- 지급여력비율은 이상위험준비금이 감소되는 경우 약 74%p 감소하나 931.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지진으로 보험금 지급이 손보 당해연도 수익 및 자기자본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은 편임.

- 거대 지진발생후에는 이상위험준비금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재보험회수에 의한 재보험료 인상도 예상되며, 이 때문에 지진발생후 수년간은 손보 수익이 강한 하향 압력을 받게 될 것임.

<표 1> 주요 손해보험 9개사의 손익에의 영향 시산

(단위 : 억엔)

구분	2004년	시산	
			2004년과의 차이
보유보험료	70,292	70,292	0
수입보험료(손해조사비포함)	45,014	50,601	5,587
자연재해 해당분(손해조사비 비포함)	5,013	10,600	5,587
수수료 및 집금비+보험인수에 소요되는 영업비 및 일반관리비	22,683	22,683	0
보험영업수지	2,595	△2,992	△5,587
지급준비금적립액 증가	2,153	1,651	△502
자연재해 해당분	502	0	△502
이상위험준비금적립액 증가	△1,488	△96	△6,908
책임준비금(이상책임준비금 제외) 적립액 증가	2,452	2,452	0
보험영업손익	△510	1,313	1,823
손해율	64.0%	72.0%	7.9%
자연재해 해당	7.1%	15.1%	7.9%
사업비율	32.3%	32.3%	0.0%
합산비율	96.3%	104.3%	7.9%

자료 : 保険毎日新聞, “損保, 保険金支拂は限定的”, 2005.9.20.

(조혜원 선임연구원)

4. 중국동향

<보감위, 2005년 1월~5월 실적 발표 및 보험시장 평가>

2005년 1~5월,
중국 보험료
수입은 총
2,195억
위안으로 집계

□ 중국보험규제감독위원회(CIRC)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중에 중국 국내 보험회사, 외국기업 및 외자와 합병한 회사 등의 보험료 수입은 총 2,194억 7,000만 위안으로 집계되었음.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1,624억 9,000만 위안으로 이 중에서 외국기업 및 외자합병회사의 보험료는 244억 7,000만 위안임.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569억 8,000만 위안으로 이 중 외국기업 및 외자합병회사의 보험료는 6억 6,587억 위안임.

□ 회사별로는 China Life Insurance가 704억 3,000만 위안의 보험료를 거수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고, 2위사는 Pingan Insurance사로 243억 6,000억 위안, 3위사는 China Pacific Insurance로 172억 위안의 보험료를 거수하였음.

○ 이탈리아 보험회사인 Generali는 외자 합병회사 중에서 최대 202억 위안의 보험료를 거수하였고 합병회사 중 2위사는 AIG의 자회사에서 24억 4,000천만 위안을 거수함.

○ 중국 생명보험시장에서 외자계 보험회사의 2004년 시장점유율은 2.6%로 2003년의 2%보다 증가하였음.

중국보험시장의
특징

□ 중국 보험규제감독위원회에서는 2005년 상반기 중국 보험시장에 나타난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함.

○ 첫째, 보험료 수입뿐만 아니라 보유자산 역시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둘째, 생명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신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신규 보험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음.
- 셋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금액이 증가하고 투자수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무가 강화되었음.
- 넷째, 중국 보감위의 보험회사 및 계약자 보험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위험예방업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다섯째, 지급보험금 규모 또한 증가함에 따라 보험에 대한 사회적 보장기능이 강화되었음.

자료 : 保險毎日新聞, “中國 保險料收入 2195億元に”, 2005.7.20.

(조혜원 선임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4				CY2005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5.3	5.5	4.7	3.3	2.7	3.3
경상수지	6,131	7,030	7,098	7,354	5,950	2,757
수 출	59,299	63,975	61,634	68,937	66,812	69,753
수 입	52,798	55,270	54,708	61,688	60,525	63,545
실업률	4.1	3.8	3.5	3.6	3.7	3.6
금리	국고채(3년)	4.76	4.40	3.87	3.41	3.96
	회사채(3년)	5.30	4.84	4.03	3.72	4.34
소비자물가지수	113.4	114.2	115.6	115.5	117.0	117.6
환율	원/달러	1,146.6	1,155.5	1,151.8	1,035.1	1,015.5
	엔/달러	105.84	108.69	110.9	103.76	106.91
종합주가지수	880.50	785.79	835.09	895.92	965.68	1,008.16
외환보유고	163,557	167,030	174,448	199,066	205,447	204,986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1/4	2/4	3/4	4/4	1/4	2/4
보 험	48,649	64,808	71,449	94,002	55,643	71,225
생명보험	37,604	48,549	54,862	75,500	42,277	53,602
손해보험	11,045	16,259	16,587	18,502	13,366	17,623
은 행	-67,109	37,239	-1,871	-28,410	-20,297	176,673
일반계정	-11,707	40,699	19,734	-13,394	-30,494	196,056
신탁계정	-55,402	-3,460	-21,605	-15,016	10,197	-19,383
증 권	-5,145	5,049	-1,427	-11,172	16,898	11,948
투 신	170,435	-14,380	136,801	148,323	52,889	46,962
종 금	-20,816	7,090	940	-18,256	19,416	2,048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 존 보 험	보험료	28,192	115,676	28,266	31,173	32,542	29,385	121,366	28,660
	성장률	16.0	26.5	18.3	17.4	-12.1	4.2	4.9	1.2
	구성비	23.4	23.0	23.3	24.6	20.9	21.9	22.6	20.9
사 망 보 험	보험료	60,047	229,359	61,844	63,199	64,497	65,798	255,338	66,402
	성장률	9.7	8.3	11.2	12.9	11.8	9.6	11.3	7.4
	구성비	49.9	45.5	51.0	49.9	41.4	49.1	47.5	48.5
생사혼합 보험	보험료	21,916	94,505	20,028	20,264	20,279	19,076	79,646	18,312
	성장률	-18.7	-14.4	-14.6	-11.8	-22.4	-13.0	-15.7	-8.6
	구성비	18.2	18.8	16.5	16.0	13.0	14.2	14.8	13.4
변액보험	보험료	2,356	7,621	2,785	3,293	6,256	11,456	23,789	12,093
	성장률	122.5	285.7	202.8	189.9	94.9	386.3	212.2	334.3
	구성비	2.0	1.5	2.3	2.6	4.0	8.6	4.4	8.8
개 인 보험계	보험료	112,510	447,161	112,923	117,929	123,574	125,714	480,140	125,408
	성장률	5.1	7.6	8.7	10.6	-0.4	11.7	7.4	11.1
	구성비	93.6	88.7	93.2	93.1	79.4	93.9	89.3	91.6
단 체 보 험	보험료	7,725	56,764	8,262	8,769	32,158	8,177	57,366	11,526
	성장률	-10.3	-24.5	-18.3	8.3	4.3	5.8	1.1	39.5
	구성비	6.4	11.3	6.8	6.9	20.7	6.1	10.7	8.4
전 체	보험료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4
	성장률	3.9	2.7	6.3	10.4	0.5	11.4	6.7	1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17,556	60,247	15,433	15,680	18,243	21,794	71,150	17,888
	증가율	6.8	14.5	13.4	14.6	18.5	24.1	18.1	15.9
	지급률	62.3	52.1	54.6	50.3	56.1	74.2	58.6	62.5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20,773	74,428	20,345	21,657	23,811	24,863	90,676	22,699
	증가율	30.7	34.4	21.2	21.7	24.8	19.7	21.8	11.6
	지급률	34.6	32.5	32.9	34.3	36.9	37.8	35.5	34.2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26,875	120,173	25,356	23,603	25,595	27,781	102,335	24,453
	증가율	-24.0	15.4	-24.0	-24.6	-10.6	3.4	-14.8	-3.6
	지급률	122.6	127.2	126.6	116.5	126.2	145.6	128.5	133.5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324	706	399	404	635	1,467	2,905	598
	증가율	2382	1589	468.5	283.1	207.9	353.0	311.6	49.9
	지급률	13.7	9.3	14.3	12.3	10.2	12.8	12.2	4.9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65,528	255,554	61,534	61,344	68,284	75,905	267,067	65,638
	증가율	-3.2	20.4	-3.6	-2.5	7.9	15.8	4.5	6.7
	지급률	58.2	57.2	54.5	52.0	55.3	60.4	55.6	52.3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7,103	61,840	11,101	10,492	11,948	15,618	49,159	14,651
	증가율	-1.5	-24.6	-27.5	-17.0	-28.9	-8.7	-20.5	32.0
	지급률	221.4	108.9	134.4	119.7	37.2	191.0	85.7	127.1
전체	지급보험금	82,631	317,394	72,635	71,836	80,232	91,522	316,226	80,289
	증가율	-2.9	7.9	-8.2	-4.9	0.2	10.8	-0.4	10.5
	지급률	68.7	63.0	59.9	56.7	51.5	68.4	58.8	58.6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사업비	3,564	14,118	3,377	3,623	3,725	5,851	16,576	3,775
	증가율	-0.6	-0.2	9.0	10.8	-11.0	64.2	17.4	11.8
	사업비율	12.6	12.2	11.9	11.6	11.4	19.9	13.7	13.2
사망보험	사업비	16,504	61,705	15,836	16,112	16,208	20,444	68,599	16,078
	증가율	8.5	2.2	9.0	9.1	1.9	23.9	11.2	1.5
	사업비율	27.5	26.9	25.6	25.5	25.1	31.1	26.9	24.2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2,009	7,647	2,078	3,176	4,291	5,443	14,988	5,444
	증가율	7.0	-5.8	21.4	82.6	96.2	170.9	96.0	162.0
	사업비율	9.2	8.1	10.4	15.7	21.2	28.5	18.8	29.7
변액보험	사업비	-	-	-	-	-	-	-	-
	증가율	-	-	-	-	-	-	-	-
	사업비율	-	-	-	-	-	-	-	-
개인보험계	사업비	22,077	83,470	21,291	22,910	24,225	31,737	100,164	25,298
	증가율	6.8	1.0	10.1	15.9	8.7	43.8	20.0	18.8
	사업비율	19.6	18.7	18.9	19.4	19.6	25.2	20.9	20.2
단체보험계	사업비	750	2,732	572	605	706	1,203	3,087	686
	증가율	1.9	6.4	-6.9	-7.3	-1.1	60.4	13.0	19.9
	사업비율	9.7	4.8	6.9	6.9	2.2	14.7	5.4	6.0
전체	사업비	22,827	86,202	21,863	23,516	24,931	32,941	103,251	25,983
	증가율	6.6	1.2	9.6	15.1	8.4	44.3	19.8	18.8
	사업비율	19.0	17.1	18.0	18.6	16.0	24.6	19.2	19.0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63	664	825	685	2,937	794
	성장률	-7.5	-12.8	-6.4	-1.0	-7.1	4.1
	구성비	1.4	1.2	1.3	21.2	1.3	1.3
해 상	보험료	1,263	1,410	1,263	1,135	5,071	1,399
	성장률	-9.5	1.8	9.7	-13.3	-3.2	10.7
	구성비	2.3	2.5	2.0	2.0	2.2	2.3
자동차	보험료	20,851	21,528	21,991	20,838	85,208	21,386
	성장률	10.1	4.2	8.3	5.8	7.0	2.6
	구성비	37.4	37.7	35.3	36.4	36.7	34.9
보 증	보험료	2,353	2,179	2,218	2,268	9,018	2,255
	성장률	-2.9	-3.6	-1.8	-8.3	-4.3	-4.2
	구성비	4.2	3.8	3.6	4.0	3.9	3.7
특 종	보험료	5,083	5,088	5,691	4,507	20,369	5,745
	성장률	11.8	14.2	10.7	14.6	12.7	13.0
	구성비	9.1	8.9	9.1	7.9	8.8	9.4
해외 원보험	보험료	208	214	188	186	796	129
	성장률	51.9	38.4	15.3	7.0	26.7	-37.8
	구성비	0.4	0.4	0.3	0.3	0.3	0.2
장 기	보험료	22,795	23,553	24,710	25,295	96,353	26,459
	성장률	9.2	12.2	13.3	14.3	12.3	16.1
	구성비	40.9	41.3	39.7	44.2	41.5	43.2
개 인 연 금	보험료	1,746	1,680	1,695	1,679	6,799	1,684
	성장률	2.5	-1.5	-1.3	-3.9	-1.1	-3.5
	구성비	3.1	2.9	2.7	2.9	2.9	2.8
퇴 직 보 험	보험료	686	715	3,642	579	5,622	1,383
	성장률	113.2	84.3	4.4	-22.9	13.6	101.8
	구성비	1.2	1.3	5.9	1.0	2.4	2.3
계	보험료	55,748	57,031	62,222	57,172	232,173	61,236
	성장률	9.0	8.1	9.3	8.1	8.6	9.8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2.7	58.8	54.8	56.4	38.8
	사업비율	57.2	54.7	55.6	55.0	53.8
	합산비율	109.8	113.5	110.4	111.4	92.6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61.3	51.3	49.3	49.5	42.8
	사업비율	34.2	31.5	32.7	30.0	28.3
	합산비율	95.5	82.8	82.0	79.5	71.1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1.6	72.3	72.7	72.7	71.5
	사업비율	30.3	31.2	31.8	32.2	30.6
	합산비율	102.0	103.5	104.5	104.9	102.0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6.6	27.6	21.9	25.3	27.9
	사업비율	6.8	16.6	16.2	20.5	12.8
	합산비율	53.4	44.2	38.1	45.8	40.7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3.1	47.4	46.5	52.0	40.3
	사업비율	22.1	22.5	25.0	26.5	25.1
	합산비율	65.2	69.9	71.5	78.6	65.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13.2	44.3	49.4	41.0	29.1
	사업비율	22.2	83.0	89.8	80.2	73.1
	합산비율	35.4	127.3	139.2	121.2	102.2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5.9	86.6	87.1	87.9	85.6
	사업비율	15.9	15.8	15.7	15.4	15.6
	합산비율	101.7	102.4	102.8	103.3	101.2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7.9	118.4	118.1	123.8	117.6
	사업비율	9.9	10.4	10.4	10.5	9.9
	합산비율	127.8	128.8	128.5	134.3	127.4
전 체	경과손해율	76.1	76.6	76.6	77.7	75.3
	사업비율	21.8	22.6	23.0	23.2	22.1
	합산비율	97.9	99.2	99.6	100.8	97.4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98-7 퇴직연금 처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익, 1998.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효율 적용 방안 / 이희준, 조혜원, 2001.1
-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
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
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한기정, 2005.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1호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 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 소 2004. 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2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 구소, 2005. 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정 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5년 가을호(통권 35호)

2005년 10월 10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한컴닷컴
전화 (02) 2277-7311

정가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